



대한민국 행복금융
하나금융그룹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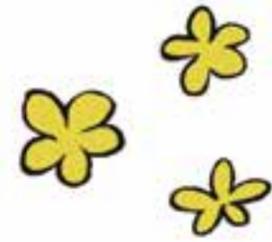


05

MAY 2015
vol.05
MONTHLY MAGAZINE

너로
사랑한다면
언제라도

사랑



이런십오년
오늘까지
이해인수리의
시집중에서
이상현음 

표지 작가소개

캘리그래피스트 이상현

〈해를 품은 달〉 〈타짜〉 〈국순당 우국생, 백세주〉 〈교촌치킨BI〉

현,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예문화예술학과 초빙교수

사, 한국 미술 협회 이사, 한국 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상임이사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Is there
a man who
will make you
happier?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해바라기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랫말처럼 힘들고 지친 당신의 인생 여정에
힘이 되어줄 그런 누군가가 당신에게는 있습니까?

행복이란 무엇일까? 가족, 친구 등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그 답이 있다.
소설 ‘꾸삐씨의 행복여행’에서는 성공한 정신과 의사 꾸삐 씨가 여행하며 깨닫게 된 행복에
대한 지혜를 소개한다. 이 책에서 꾸삐씨는 매우 사소한 부분의 관찰을 시작으로 행복의 비밀을
하나하나 발견해 간다. 비행기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대화, 호텔 바의 웨이터, 경호원, 술집 여자,
지나는 행인들의 얼굴 등 그는 매순간 사람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다.

결국 그가 깨달은 가장 커다란 행복의 비밀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이다.

행복에 대한 담론이 넘쳐나는 요즘, 우리에게 또 한번의 책이 눈길을 끈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에서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1,000명이 넘는 70세
이상의 사람들을 인터뷰 해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들은 행복에 대해 이렇게 조언한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삶의 조각들이고, 그 조각들이 맞춰져 온전한 삶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 삶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지. 자네도 알겠지만, 희망은 지금 이곳에서, 자네가 만드는 거야,
불행할 게 뭐 있어? 오늘, 이곳에서, 가능한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네.”

그렇다면 당신의 지금 이 순간은 어떠한가.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그 사람에게 시선을 옮겨보자.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만큼 벅찬 행복도 없다.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충실할 것. 이것이 지금 이 순간 행복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감정의 교류로 피어나는 행복

추운 겨울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며 다가오는 봄처럼, 행복의 온도를 높이고 싶은가? 그렇다면 가족과 친구 등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열정으로 내 안에 행복의 불을 지펴보는 건 어떨까. 이해인 수녀는 얼마 전 낸 시집에서 “서로 사랑하면 언제라도 봄”이라는 표현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순간이 곧 행복한 봄이라고 고백한다.

하버드대학교 한 연구팀은 1930년대 말에 입학한 2학년생 268명의 삶을 72년간 추적하며 행복에 대한 답을 찾아왔다. 그들이 내린 연구의 결론 중 하나는 바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다.

최근 행복에 대한 담론으로 ‘감정교류’, ‘공감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린 시절, 듬뿍 사랑받고 마음껏 뛰어논 사람은 궁극적으로 ‘행복한 인간’이 된다.

타인과 소통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이른바 ‘공감능력’이 잘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경험하는 세상은 아주 밀도 높고 생생한 것이며, 긍정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관계가 주는 행복은 바로 이런 것이다. 늦지 않았다.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과

소통하고, 사랑하자. 행복한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기!

페이스북에 1,000명의 친구가 있어도 지금 이곳에 한 명의 베스트 프렌드가 없다면 알맹이가 없는 인생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노력이 우리에게겐 절실하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여성은 자신의 아이와 보내는 시간을 그다지 즐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물리적으로는 아이와 같이 있지만 동시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

SNS를 체크하는 데 몰입하고, 또 조금 전에 했거나 혹은 다음번에 해야 할 활동 등을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행복감이 떨어진다. 아이와 놀아줄 때, 배우자와 시간 보낼 때, 친한 친구와 함께 있을 때 등 하루에 한두 시간 만이라도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마련해보자. 당신의 행복지수는 분명 높아질 것이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동행, 배우자와 나

하버드대의 행복연구팀은 행복의 조건으로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꼽는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은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 아닐까.

“그이가 떠나기 2주 전 밤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해서 내가 웃음을 터뜨렸더니 그이가 나를 지그시 보면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곤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도 난 당신을 여전히 웃게 만들 수 있다고.’ 그 사람은 늘 나를 웃게 하는 사람이었죠.” 먼 훗날 배우자와 헤어질 날이 올 때쯤 서로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전문가들의 몇 가지 조언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거리들을 던져준다.

첫째, 배우자와의 설렘보다 우정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랑과 함께 깊은 우정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결혼은 반반씩 내놓는 것이 아니며,

더 많이 주려는 서로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셋째, 대화는 두 사람을 이어주는 중요한 방법이다. 두 사람 중 최소한 한 사람이라도 수다쟁이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진정한 행복의 방정식

서울대 행복연구센터가 한국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혼자 있을 때보다 가족·친구·연인이 주는 행복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족·친구·연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는 활동을 늘리면 행복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싶다’는 말을 주문처럼 외우지만 자녀는 거실에서 TV를, 아버지는 서재에서 신문을, 어머니는 주방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지낸다면 함께 있다고 해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엔 한계가 있다. 행복연구센터는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와 ‘그들과 함께하는 활동’이 단단히 고정될 때 행복의 방정식은 성립된다고 강조한다. 또 데이비드 번즈는 ‘관계 수업’이라는 책에서 오랜 임상치료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고 상대방을 비난한 사람들은 어떤 치료 기법을 동원해도 절대로 상태를 개선하지 못했다.

하지만 스스로 변화하는 데 집중한 사람들은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결국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책임을 돌아보며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줘야겠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누군가와 행복한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나 아닌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와 따뜻한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가. 타인의 안쪽에 뿌리 깊게 내려앉아 나를 돌아보고, 너를 이해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충만한 세계에서 행복의 실마리를 발견해보자.



CONTENTS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5년 05월호 vol.05
MONTHLY MAGAZINE, MAY 2015



08 행복을 주는 사람 | 황임숙

아직도 소녀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황임숙 씨. 30년 동안 늘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해서일까. 내년이면 여든 살이라는 나이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목소리 천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황임숙 씨는 30년을 매일 같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녹음도서 제작 봉사를 해왔다. 황씨는 "봉사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그것이 행복한 노후의 비결"이라고 말한다.



18 지식프라자 - 세무 | 자녀에게 스.마.트하게 증여하는 법

고객과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하는 자녀에게 주택을 마련해 주려다가 증여세 때문에 고민을 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예전과는 달리 자녀의 이름으로 전세를 얻어도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더 이상 증여세의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 것이다.



28 Alone, together | 나른한 오후 차 한 잔, 행복 두 스푼

오후 두 시, 점심을 먹고 바쁜 일을 끝내고 나니 잠시의 여유가 찾아온다. 라디오에선 조안나 왕이 부르는 'Aubrey'가 흘러나온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차 한 잔을 마신다. 창 밖의 초록 나뭇잎들을 잠시 바라본다. 차 한 잔과 음악,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하는 이 시간, 잔잔한 행복이 흐른다.



42 부동산 이슈 | 봄기운 완연한 서울 재건축아파트 시장

서울시내 재건축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된 덕분에 재건축 사업진행에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분양시장 호조세에 힘입어 사업수익성 제고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껏 뜨겁다.

OPENING

- 01 **행복을 위한 질문**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INTERVIEW

- 08 **행복을 주는 사람**
목소리 나눔,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죠

INFO GRAPHY

- I 2 **한눈에 보는 연금 세상**
국민연금 가입 현황

행복미래설계

- I 4 **H씨의 행복설계**
한발 앞선 노후준비로 인해 행복.한 노후 설계 가능
- I 8 **지식 플라자**
자녀에게 스.마.트하게 증여하는 법 유언에 관한 흔한 오해 및 진실 국민연금 임의가입
- I 24 **Do! Dream**
가슴 속에 잠든 '별'을 깨우다!
- I 26 **Anti aging**
영양제 사용설명서
- I 28 **Alone, together**
나른한 오후 차 한 잔, 행복 두 스푼

연금이슈포커스

- I 30 **연금 포커스**
연금저축계좌 이동 간소화 됐는데 해야 되나

경제 TREND

- I 34 **경제 이슈**
구조적 장기침체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
- I 38 **시장이슈**
글로벌 금융 불안의 순환, 우리 경제의 안정성은?
- I 42 **부동산이슈**
봄기운 완연한 서울 재건축아파트 시장

GLOBAL

- I 46 **지구인 이야기**
영국 스마트폰 시장, 실버세대를 잡아라

FUTURE

- I 48 **은퇴, 버킷리스트**
재능 기부로 함께 행복해지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월간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5년 5월호 vol.05 (통권 5호)
 발행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록번호 영등포, 리00424 등록일 2015.01.27 제호 행복Knowhow 간행 월간 발행인 배현기 편집인 김대익 발행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12층 발행일 2015년 5월 9일
 전화 02-2002-2200 팩스 02-2002-2610 홈페이지 www.hanaif.re.kr 편집위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정승희 수석연구원, 박지홍 연구원, 하나은행 | 김한성 팀장, 최호재 팀장, 외환은행 | 김홍균 수석전문역, 조선영 차장, 하나대투증권 | 이정철 실장, 하나생명 | 최춘석 차장 계약 및 기획 커뮤니케이션즈 전화 02-3452-3789 홈페이지 www.teum.co.kr

목소리 나눔, '행복한 인생'의 비결이죠

아직도 소녀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황임숙 씨.

30년 동안 늘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해서일까. 내년이면 여든 살이라는 나이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목소리 천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황임숙 씨는 30년을 매일 같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녹음도서 제작 봉사를 해왔다. 황씨는 "봉사를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그것이 행복한 노후의 비결"이라고 말한다.

30년 봉사로 대통령표창 받은 '목소리 천사'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황임숙'을 모르면 간첩일 정도로 황씨는 녹음봉사실의 대모로 불린다. 그도 그럴 것이 30년을 한결같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녹음도서 봉사를 하며 80에 가까운 나이에도 청아한 목소리로 열정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에 소장된 황임숙표 녹음도서는 모두 976권, 복지관 전체 녹음도서중 7.5%를 차지하는 많은 양이다.

요즘에는 대부분의 봉사자들이 읽기를 꺼려하는 두껍고 어려운 책이나 전집류도 황씨가 자청해서 읽으며, 시각장애인들이 최신 도서를 빨리 접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1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표창까지 받아 청와대에 다녀오기도 했다.

"박 대통령이 이 사회에 행복바이러스가 되어달라고 하셨어요. 작은 힘이나마 이 사회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녹음봉사로 인생2막을 열다

황임숙 씨와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 녹음부스에서 사진촬영을 먼저 진행했다. 그런데 그곳에 앉아 사진촬영을 하던 그녀의 눈시울이 갑자기 붉어지더니 잔잔히 눈물이 맺혔다. 살짝 당황하던 취재진에게 그녀가 건넨 한마디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다 나네요"였다.

기뻐서 눈물이 난다는 말의 뜻을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그녀와 인터뷰를 하며 그 의미를 짐작할 수 있었다.

"제가 이곳에 나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제 가정,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별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가족이 아파 병원에 입원이라도 한다면 제가 여기에 나와서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 두루두루 평안하라는 증거죠. 그것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녀의 말마따나 50살에 녹음봉사를 시작해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크게 아프지 않았다고 하니 봉사야말로



그녀에게 ‘엔돌핀’이자 ‘보약’이라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제가 봉사를 하지 않았으면 진즉에 암에 걸리거나 아파서 죽었을 거예요. 봉사를 시작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매사에 감사하게 되고, 제 몸을 보살피게 되더라고요. 내일 나가서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있어야 하고, 좋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감기 등 건강관리에도 힘을 쓰게 되거든요. 먹는 것도 좋은 걸로 신경을 써서 먹구요. 한마디로 ‘옥체보존’해야 매일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지난 30년 동안 꾸준히 봉사할 수 있는 힘이었어요.”

30년 전 대치동이 집이었던 황임숙 씨는 매일 첫차를 타고 복지관에 7시 30분에 도착했다. 그 당시에는 교통이 외진 이곳에 들어오는 버스가 24번 한 대뿐이었는데, 태풍이 불면 버스도 안 들어가던 그런 시절이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둥번개가 치나 버스가 이곳에 들어오지 않을 때는 버스에 내리 진흙탕 길을 걸어왔다고 하니, 그녀의 집념이 놀라울 따름이다.

복지관 옆에는 수영장이 있는데, 7시 반에 도착해 1시간 정도 수영을 한 후 9시부터 봉사를 했다고 한다. 이런 생활을 매일 하다 보니 당연히 건강도 좋아졌다고.

“예전에는 오전에 봉사를 하면 점심 때 식당에서 밥을 쫓아오. 어느 날 식당이 좁아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얼굴이 노란 이 좁아 와서 밥을 먹더니 몇 달 후 보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처음엔 남을 돕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가 더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생활로 행복을 찾다

황 씨가 처음 녹음 봉사를 시작한 건 1989년, 작은딸을 유학 보내고 나서 경미한 우울증을 앓고 있을 때였다. 평소 책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던 조카딸이 녹음봉사를 권유했다고 한다. 조카인 소금자 씨는 “이모, 내가 의정부로 이사를 가게 돼서 녹음봉사를 못하게 됐는데, 이모가 내 자리를 대신 메워주면 안 될까?”라고 부탁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곳에 막상 왔지만, 그 때만 해도 봉사에 특별한 뜻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또한 교통이 매우 불편해서 다니기가 힘들어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마침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식판에 밥을 흘리고 넘어지는 모습, 양갈래로 머리를 탄 예쁜 여고생이 앞이 안보여서 넘어지는 모습, 신나가 눈에 들어가 실명한 건장한 젊은 청년 등 다양한 시각장애인들을 보게 됐다고 한다.

“그분들은 약시만 돼도 넘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로 힘든 삶을 사는 이들을 보고 집으로 와서 뜨겁게 회개를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앞을 볼 수 있다는 귀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모르고 늘 부족한 것을 원망하고, 더 많은 것을 탐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됐어요. 그 날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마디로 ‘감사’생활이 시작된 거죠.”

딸에게, 손자에게 읽어준다는 마음으로 읽다

“상일동역 전철에 내려 이 곳까지 20분 정도를 걸어서 오는데, 늘 목상을 하면서 걸어옵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바뀌는 아름다운 풍경, 봄에 올라오는 새싹들, 나뭇가지들을 시각장애인들은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을까 그게 늘 고민이에요.”

그래서 황 씨는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책의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처음에는 전문 성우처럼 뛰어난 목소리는 아니라는 생각에 듣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이제는 친 오빠에게, 딸에게, 손자에게 읽어준다는 생각으로 읽으니 창피하고 미안한 마음이 조금은 줄어들었다고 한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스스로 알게 됐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좋은 일 하거나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사실 봉사를 하면할수록 듣는 이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제 목소리는 아무래도 늙어가는데, 듣는 분들도 더 예쁘고 젊은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곳에서 젊은 분들도 늘어나고 전문 성우들도 봉사를 하고 하시거든요. 하지만 지극하게 봉사하는 분들은 드물어요. 바쁘다고 금방 그만두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들구요. 그런 점에서 그래도 나는 그분들이 좋은 책을 빨리 접할 수 있도록 자주 나와서 읽고, 그만두지 않고 꾸준히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토닥이죠.”
황 씨가 봉사를 하며 가장 보람이 있을 때는 독자들의 팬레터를 받거나, 안부 전화를 받을 때다. “명절 때마다 안부를 물어주고, 건강하시라고 덕분에 책을 잘 듣고 있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참 감사하죠. 그런 전화를 받으면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까지 녹음하고, 내일 죽는 것, 그것이 소망”

황 씨가 처음 봉사를 시작할 때, 남편은 “그런 정성이 있으면 차라리 돈을 버는 게 어때냐”고 했다고 한다. 매일매일 나가서 봉사하는 것을 탐탁찮아 했다고.
“남편 입장에서는 마치 가족을 소홀히 하고 밖으로 다닌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저의 모습을 보고, 늘 응원해줬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저는 자식들에게도 자주 찾아오지 말라고 해요. 저는 봉사하느라 바쁘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요(웃음). 또 저희 집은 제사나 생일을 챙기지 않아요. 자식들에게도 ‘오늘 너와 내가 맛있게 밥을 먹는 날이 회갑이고 진갑이다’라고 말해요. 사실 생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언제든 함께 밥을 먹는 그 순간 행복한 것이 더 소중하죠.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스스로 알게 됐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 그녀의 소망은 한 가지다. 죽기 전 날까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도서를 녹음하는 일이다. “오늘까지 녹음하고, 내일 죽는 것, 그것이 제 소망이에요. 저는 여태껏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빅토르 위고는 ‘만기일이 되면 저절로 죽게 돼 있다’라고 했는데, 저도 언젠가 유통기한이 끝나면 그렇게 되겠죠? 그 날까지 ‘하루에 한 가지라도 좋은 일 하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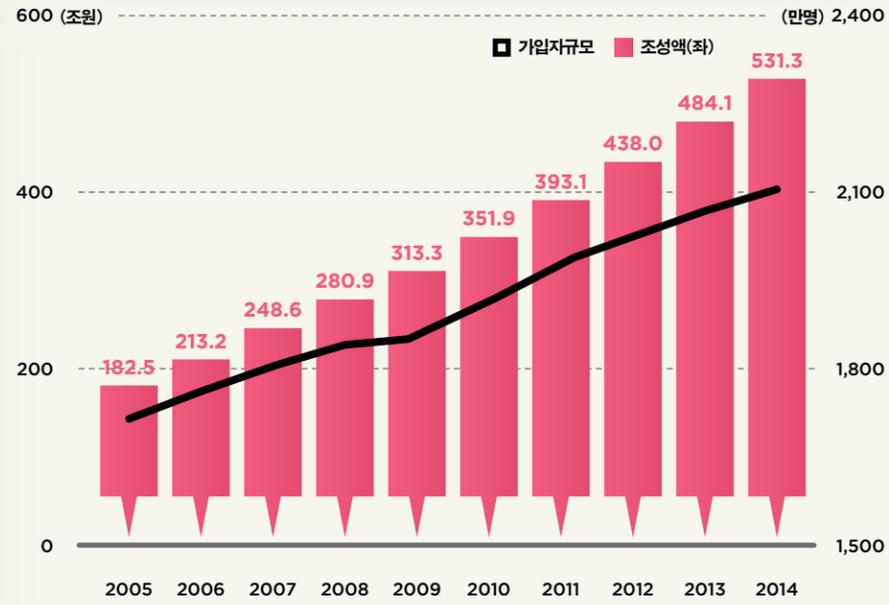


국민연금 가입 현황

임의 및 임의계속 가입자가 높은 증가세를 시험하고 있는 가운데 월소득 161만원 미만 가입자가 전체의 50% 점유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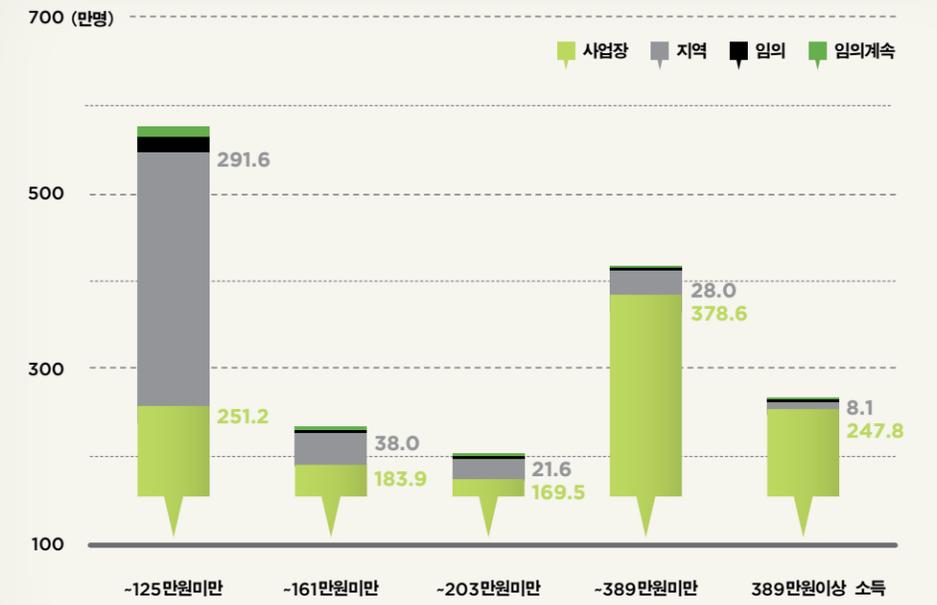
국민연금
조성 규모



자료 : 국민연금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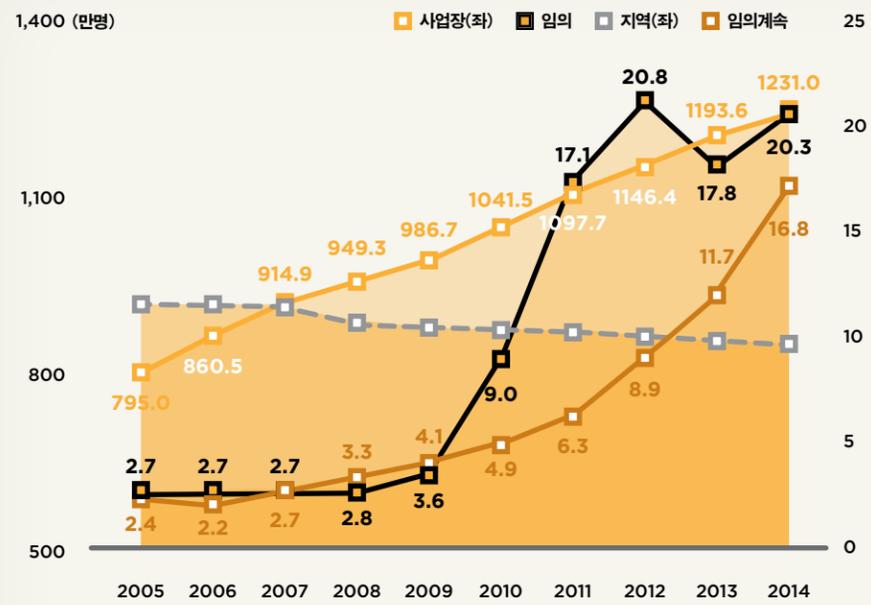
소득별
가입자



주 : 2014년 기준
자료 : 국민연금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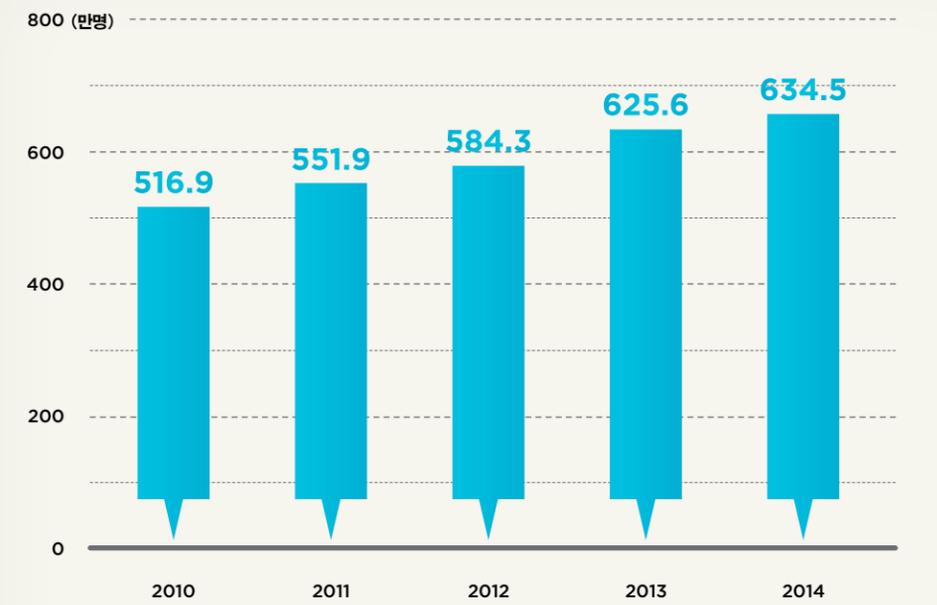
가입자
현황



주 : 임의계속 가입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자가 60세 이후에도 신청에 의하여 계속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
자료 : 국민연금

04.

연금을 받을 수
있는 10년이상
가입자



자료 : 국민연금

한발 앞선 노후준비로 인해 행복한 노후설계가 가능

H씨는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정주부인 부인과 고등학생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다. 현재 약 3억원의 전세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금융자산으로는 펀드 4억 4,000만원 보유, 부채는 전혀 없다. 월평균 6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다. 노후를 위한 착실한 준비에도 노후 생활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 55세에 은퇴할 예정이며 노후 생활비로 월 200만원을 원하는 상황이다. H씨의 불안감을 잠재울 현명한 노후 설계 방법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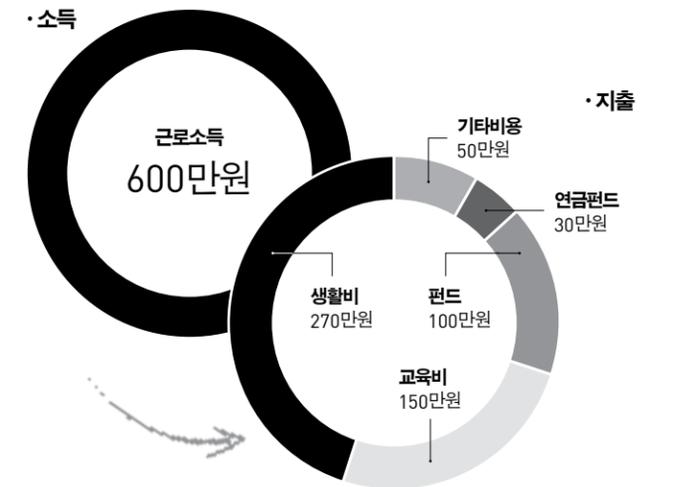
나름 착실하게 준비해 왔으나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할지 걱정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H씨(만 50세)는 가정주부인 부인과 슬하에 고등학교 2학년생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현재 H씨는 약 3억원의 전세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택구입 의향은 없으며 계속해서 전세를 활용할 예정이다. 금융자산으로는 펀드 4억 4,00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부채는 전혀 없다.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근로소득으로 월평균 600만원의 수입이 있으며, 지출은 생활비 420만원(교육비 150만원 포함), 펀드 100만원, 연금펀드 30만원, 기타비용 50만원이 있다.

H씨는 그동안 꾸준한 투자로 꽤 많은 금융자산을 확보했으나, 은퇴 전후에 들어갈 자녀의 대학교육비(5천만원 예상)와 결혼비용(2억원 예상)에 상속까지 생각해 보면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지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재산 및 소득흐름

· 자산	전세자금	3억
	펀드	4억 4,000만 원
· 부채	-	-
· 순자산 7억 4,000만 원		



55세에 은퇴할 예정이며 노후 생활비로 월 200만원을 원하는 상황

H씨는 은퇴시기를 향후 5년 후인 55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85세까지의 미래설계를 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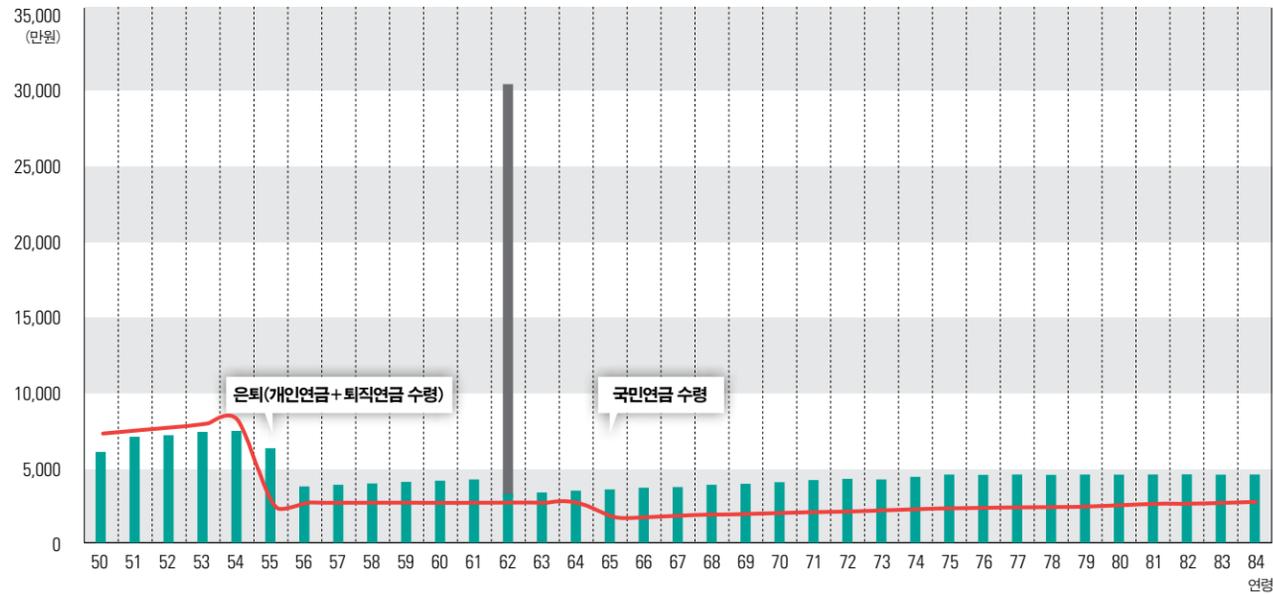
현재 H씨는 교육비를 포함한 생활비로 42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나, 은퇴 시기와 자녀의 대학 졸업 시기가 유사한 만큼 은퇴 후에는 이보다 적은 월 200만원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H씨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국민연금은 65세 이후부터 월 13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현재 평가금액으로 약 5,000만원에 이르며, 개인연금은 현재 평가금액으로 약 1억 1,000만원이고 현재도 월 20~30만원을 불입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고 가정하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55세부터 64세까지 각각 월 75만원, 121만원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H씨의 미래설계 준비 상태를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을 통해 살펴보면, 은퇴 직전인 54세까지는 여유자금이 발생하나 은퇴 후인 55세부터는 자녀 결혼비용(62세 발생 가정) 준비로 지속적인 자금부족이 발생한다. 수입·지출 현금흐름을 종합해보면 은퇴 직전인 54세까지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은 약 5년이며, 현재 흐름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약 3,000만원의 추가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은퇴 이후 부족한 자금을 모두 합치면 약 5억 3,0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수입·지출 현금흐름이란 물가상승률은 2.5%를 가정했으며, 수입은 근로소득 및 연금, 지출은 생활비, 교육비, 펀드(연금), 기타비용 등을 포함한다. 전세자금의 경우 자녀 결혼 시기까지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하고 이후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고 상승분만큼 지출에 포함. 한편, 고령으로 접어들수록 필요 생활비가 적게 소요됨을 감안해 75세부터 발생하는 노후생활비는 물가상승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았음

연령별 수입 - 지출 현금흐름



H씨의 걱정과는 달리

노후 준비는 잘되어 있는 모습

H씨의 순자산 흐름을 분석해보면 그동안 노후 준비를 잘해 왔음을 알 수 있다. 62세에 자녀 결혼으로 목돈이 지출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순자산 흐름에 크게 위협을 주는 요소는 없으며, 각종 연금과 그동안 축적해 왔던 금융자산을 활용하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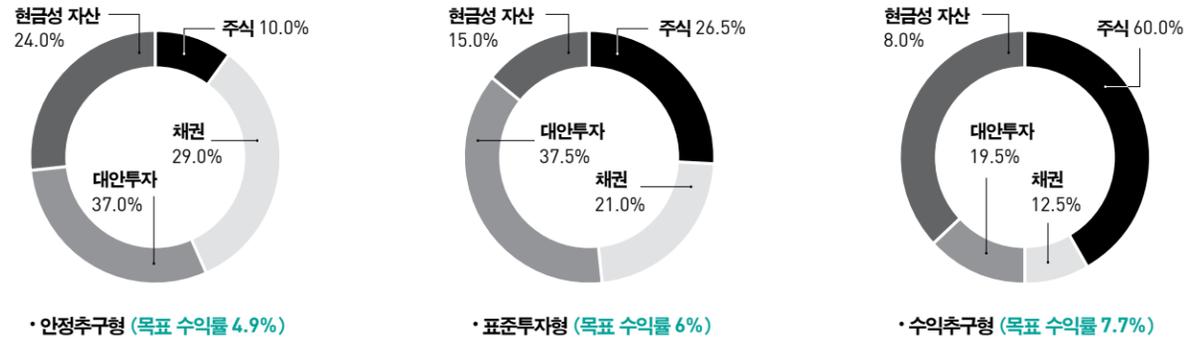
현재 보유하고 있는 4억 4,000만원의 금융자산과 은퇴 전까지 생길 여유자금 3,000만원에 대해서 3.19%의 수익률로 운용할 경우 월 200만원의 예상 노후생활비를 충당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약 4억원(H씨의 전세금은 2.5%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경우 자녀가 결혼하는 62세에 약 3억 9,000만원이며, 이 금액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다.)을 자녀에게 상속해주는 것도 가능하다.

하나대투증권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에 따르면 H씨의 목표수익률인 3.19%는 안정추구형보다 낮은 수익률이다. 안정추구형의 경우 목표 수익률이 4.9%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며 원금보존을 추구하는 투자 유형이다.

H씨의 경우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금융자산 운용이 필요하므로 국내 채권 및 대안투자 상품 중심으로 투자할 경우 목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H씨가 더 높은 위험을 수용할 경우 노후 생활비 수준 또는 자녀 상속 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다. 첫 번째로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 현재 노후 예상 생활비를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녀 상속 액은 기존 4억원 규모를 유지할 경우 목표수익률은 5.05%가 된다. 안정추구형의 목표수익률이 4.9%이고 표준투자형의 목표수익률이 6.0%임을 감안하면 5.05%의 수익률은 달성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로 자녀 상속액을 다소 줄일 경우 목표수익률은 더 낮아지게 된다. 노후 예상 생활비를 250만원으로 유지하고 자녀 상속액을 4억원 규모에서 3억원으로 낮출 경우에는 4.78%, 2억원으로 낮출 경우에는 4.44%가 된다.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주 : 하나대투증권에서는 '머니TALK'를 통해 매분기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추구형', '표준투자형', '수익추구형' 포트폴리오 제시
자료 : 하나대투증권, "머니TALK", 2015.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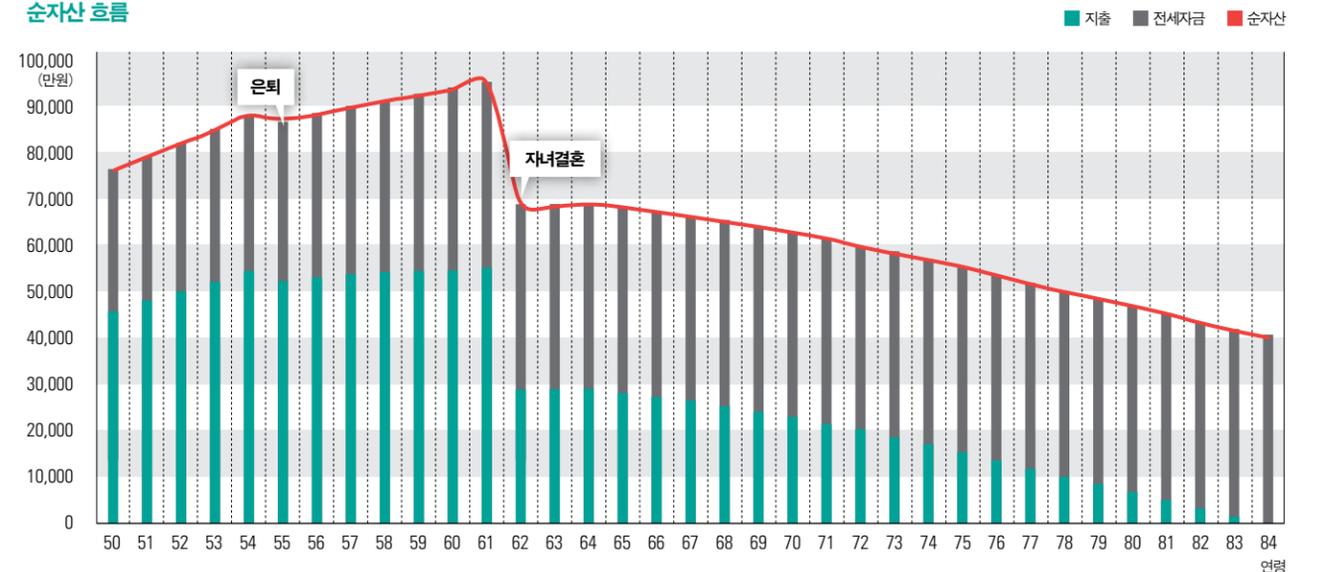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기에 시작한 모범적인 사례

H씨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한발 앞서 노후준비에 관심을 갖고 준비한 편이다. 20년 전부터 개인연금에 20~30만원을 꾸준히 납입해 은퇴 직후부터 국민연금 수령시기까지의 소득 절벽 구간을 적절히 대비했으며, 급여의 약 20%를 꾸준히 투자하며 목돈을 마련했다. 또한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 부채도 없다. 따라서 은퇴 직전까지 안정적으로 금융자산을 운용하고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노후 준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H씨와 같은 사례는 은퇴 준비 세대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젊은 시절부터 노후 준비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 저축 및 연금을 통해 금융자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택 구입을 위해 과도한 부채를 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만 H씨의 경우 실물자산을 다소 배제한 상황에서 금융자산 중심으로 자산을 축적한 측면이 있어, 향후 은퇴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실물자산과 어느 정도 균형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순자산 흐름





조기증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자녀에게 **스.마.트**하게 증여하는 법

고객과 상담을 하다 보면 결혼하는 자녀에게 주택을 마련해 주려다가 증여세 때문에 고민을 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예전과는 달리 자녀의 이름으로 전세를 얻어도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더 이상 증여세의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된 것이다.

31세까지
1억 4,000만원
증여가능

미성년인 자녀에게 사전에 증여를 했다면?

우리나라는 어린 자녀에게 목돈을 줄 경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통념상,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1세부터 10년 간격으로 꾸준히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 부담 없이 자녀가 31세가 되었을 때 1억4,000만원을 마련해 줄 수 있다. 2014년도부터 증여재산공제의 한도가 미성년의 경우 2,000만원, 성년의 경우 5,000만원으로 확대되어 미성년일 때 2,000만원씩 2번을 증여하고, 성년이 되었을 때는 5,000만원씩 2번을 증여하면 되는 것이다. 자산증식까지 감안하면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수도권에서 전세집 정도는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이다. 증여세의 부담 없이 미성년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면 반드시 어린이 전용펀드나 예금을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입하는 상품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증여재산공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10년간 받은 모든 재산에 한해 1번 적용

언제 증여신고를 해야 하나?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불입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불입을 시작한날을 기준으로 증여신고를 하면 된다. 펀드나 적금을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증여가액을 평가하게 되므로 더 유리하다. 매달 20만원씩 10년간 자녀 앞으로 펀드나 적금에 넣는다면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6.5%)로 할인받아 증여가액 2,400만원이 약 1,725만원으로 계산돼 증여세를 내지않아도 된다. 최초의 증여신고가 빠를수록 증여재산 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빨리 돌아오게 되므로 증여는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 증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될 수 있는 한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증여신고는 증여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수증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해야 한다.

할아버지 vs 아버지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하는 증여재산 공제액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은 직계존속으로 분류되는 조부모와 부모 모두로부터 10년간 1회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직계존속 1인당 적용되는 금액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미성년인 자녀에게 2,000만원을 증여했는데 할아버지가 또 다시 2,000만원을 준다면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2,000만원은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30% 더 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직계존속인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모두 비슷한 시기에 증여를 할 계획이라면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할아버지가 손자녀에게 먼저 증여를 하고 나중에 아버지가 증여를 해야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액 이상의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는 부모와 조부모가 따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의 누진세율 측면에서 유리하다.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를 계산할 때 합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으로부터 많이 받는 것보다 나누어 받는 것이 더유리하다. 그리고 세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판정하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다.

교육비로 사용하기 위해 증여한다?

교육비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굳이 증여를 하지 않아도 됨

이렇게 증여를 통해 마련된 목돈의 대부분을 자녀의 양육과 교육비로 지출할 계획이라면 굳이 자녀의 명의로 금융 상품 등을 가입해 증여세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여차피 부모가 소득과 재산이 없는 자녀를 위해서 지출하는 양육비와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증여재산으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2,000만원을 초과해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그 재산을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전부 지출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안내도 될 증여세를 낸 셈이 된다. 부모가 같은 금액을 자녀에게 주더라도 언제부터 주는지에 따라서 세금부담의 차이가 크다. 최근에는 젊은 부모들을 중심으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 번 증여를 하면 10년이 지난 후에야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으므로 10년 단위로 장기투자를 계획하고 자녀이름으로 펀드나 적금을 넣어보는 건 어떨까? 장기투자과 마찬가지로 증여도 일찍 시작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말이다.



제대로 작성해야 '효력' 있다!

유언에 관한 흔한 오해 및 진실

get the facts

유언장 작성이 하나의 트렌드로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유언이라고 해서 모두 효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유언은 작성 방식에 따라 효력을 얻을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요즘 부쩍 유언에 관한 상담이 늘고 있다. 과거에는 유언장 작성이 터부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자신의 뜻대로 재산 분할을 하면서도 자녀의 분쟁을 방지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반인들은 유언의 효력에 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유언에 관한 흔한 오해 및 진실'에 관해 알아보자.

.....
 유언은 철회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나 제일 나중에 쓴 유언이 유효

5년의 기한을 정해서 재산분할을 금지하는 유언을 할 수 있음

.....
 자필유언은 비용이 들지 않고 증인이 필요 없는 장점

.....
 공증유언은 위조나 변조의 위험이 거의 없다는 장점

Q1. 장남이 유언장을 받으면 재산분쟁은 종결된다?

부모님을 설득하여 부모님의 전 재산을 장남에게 주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다면, 장남은 그 재산을 확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유언은 언제나 철회의 자유가 있다. 따라서 유언자가 오늘 공증유언을 통해 장남에게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바뀌어 내일 자필유언을 통해 둘째에게 재산을 준다는 유언을 작성한다면, 내일자 유언이 유효하다. 이 경우 유언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 장남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Q2. 컴퓨터로 타자를 친 유언은 유효?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법률행위'이다. 유언장은 유언자의 생전에 작성하나,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비로소 발생한다. 민법이 허용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으로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5가지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법률상 효력이 없다. '컴퓨터로 타자를 친 유언'은 자필로 쓴 것도 아니고, 공증을 받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유언방법이 아니므로 그 유언은 무효이다

Q3. '재산분할을 금지' 하는 유언이 가능할까?

유언사항은 법정되어 있다. 따라서 법으로 허용하는 사항 이외의 것을 유언장에 남긴다 하더라도 이는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분할금지에 관해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언자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상속재산 분할을 금지할 것을 유언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거나 배우자의 낭비벽이 심한 경우 등의 사유로 자신의 상속이 발생한 후 상속인들이 일정 기간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지 염려된다면, 5년의 한도 내에서 재산분할을 금지하는 유언을 하는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지리산에 묻어 달라'는 것은 유언자의 희망사항이기는 하지만, 법으로 유언이 허용되는 사항은 아니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Q4. 자필로 작성한 유언을 공증 받으면 공증유언?

유언 방법 중 대표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 두 가지가 자필유언과 공증유언이다. 그러나 자필로 쓴 유언을 공증 받는다고해서 공증유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필유언의 작성주체는 유언자 본인이지만, 공증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이므로 그 작성주체가 공증인이다. 따라서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공증 받는다고 공증유언이 되는 것은 아니다.

Q5. 자필 유언 vs. 공증 유언

자필유언과 공증유언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우선 자필유언의 장점은 비용이 들지 않고, 증인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간단한 자필유언의 경우, 5분 만에도 그 유언을 완성할 수 있다. 그러나 자필유언의 단점으로는 유언장의 분실, 위조, 변조의 위험이 있다. 이에 반해 공증유언의 장점은 유언장의 분실, 위조, 변조의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증유언은 비용이 최대 300만원까지 들고, 증인이 2명 필요하다는 단점이었다. 증인이 있다면 증인을 통해 자신의 재산 상태나 유언의 내용이 유출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공증유언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요약하면 자필유언은 간편하기는 하나 추후 유언장의 진위에 관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공증유언은 다소 불편하기는 하나 유언장의 진위에 관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본인의 의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기 원한다면 자필유언이 낫지만, 추후 자녀들의 상속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유언장을 작성한다면 공증유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노후 준비,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험의 원리를 도입해 만든 공적연금제도로써 경제 생활기라고 할 수 있는 만 60세 이전까지는 매달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60세 이후 국민연금 수령기간이 되면 물가상승에 따라 사망 시점까지 국가에서 연금지급을 보장해준다. 국민연금은 만18~59세이면서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일종의 의무 보험이다. 다만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여타 공적 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들은 가입할 필요가 없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일정한 소득이 없어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한 만60세 이후에 연금수령을 위한 최소 납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임의계속가입으로 별도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임의가입 할 경우 보험료는 얼마를 납부하면 될까?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임의가입자는 별다른 소득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우선 최소 가입금액은 전년도 말 국민연금 지역 가입 장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책정한다. 2014년 현재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은 월99만원으로 임의가입자는 이의 9%인 8만9,100원을 최소한의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최대 가입금액은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와 동일하게 월 소득 상한선인 408만원의 9%인 36만7,200원으로 임의가입자는 자신의 형편에 맞춰 납부 금액을 결정하면 된다. 한편 임의가입자가 받게 되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과 보험료 금액에 비례해 달라진다.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통계를 보면 2009년만 하더라도 3.6만 명에 불과하던 임의가입자 수가 2014년 말 기준으로 2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13년 기초연금 인상에 따른 역차별 논란 등으로 잠시 탈퇴가 증가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5년 사이 가입자 수가 5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증가는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으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특히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보험료 대비 연금액 수준이 사적연금보다 높다는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임의가입에 따른 수익률은 항상 높은 것이 아니라 보험료는 적게 낼수록, 수명을 길수록 높아진다. 보험료의 수준은 선택할 수 있지만 수명은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수익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명이지만 최소보험료를 10년간 납입하고 10년간 노령연금을 받아도 연간 6.4%의 수익률을 누릴 수 있어 저금리 시대에서는 고려해 볼 만한 노후준비수단이다.

임의가입 대상 분류

무소득 배우자	타공적연금 가입자, 사업장가입자, 노령연금수급권자 등의 무소득 배우자
18~26세 무소득자	19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직역연금 수급권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 (퇴직자)

세금 다이어트 답은?

적립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유롭게 부담금을 납입하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 적립IRP 하나은행에서 만나보세요



W 가입효과

- 납입금액 (연간 700만원^{*)} 한도 × 13.2%(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2015 세법개정)
-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 ▶ (연행) 연금저축 + 퇴직연금 400만원 → (개정) 400만원 + 퇴직연금 별도 한도 300만원

EX	구분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금액
납입금액		0원	700만원	700만원
		200만원	500만원	700만원
		500만원	200만원	600만원
		700만원	0원	400만원

*) DC근로자추가납입분 + 적립IRP납입분 + 연금저축 납입분 합산 기준

W 가입대상

- 퇴직연금 DB, DC, 기업형IRP가입자
- 퇴직IRP에 퇴직급여를 적립한 자
- ※ 납입한도 : 연간 1,2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DC 가입자 추가부담금 합산 기준 / 모든 금융기관 합산 적용함

W 운용상품

- 원리금보장상품 (정기예금) : 하나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외 다양한 타금융기관 상품 제공
- 집합투자상품 (수익증권) : 적립금운용위원회에서 엄선한 12개의 자산운용사의 44개 수익증권 제공

-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적립금(원리금보장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모든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금융기관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운용방법을 집합투자상품으로 선택하시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원금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집합투자상품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펀드를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판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외화표시자산의 경우 투자대상국의 정치, 경제상황에 따른 위험 및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자산의 투자 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 M&A의 경우 장부가와 시가의 차이가 ±0.5%이상일 경우 기준가격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위 세제관련 사항은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 (pension.hanabank.com) 또는 영업점에 문의해 주세요.

가슴 속에 잠든 '별'을 깨우다!

삶은 여행이다. 여행길, 좀 더 가득 찬 여행을 위해 우린 '꿈'이라는 걸 부여잡고 달려간다.
 끊임없이 걷고 뛰며, 숨 쉴 틈 없이 배우고 고뇌하는 것이 어쩌면 삶의 순간순간을 의미있게
 만드는 최고의 비법일 런지도 모른다.
 평범한 '오늘'을 두근두근 설렘 가득한 '내일'로 만드는 소중한 지혜에 대한 탐구.

당신은 꿈이 있습니까? 과연 이 질문에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지금 당장 이를 수 없다고 해도 꿈이 이뤄지는 순간을 상상하는 사람과 꿈을 초라하게 여기는 사람은 '오늘 하
 루'가 다르다. 두근두근 가슴 뛰는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만의 꿈이 필요하다.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다. 사람이 멀리 내다보는 생각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데 근심이 생긴다(人無遠慮必有
 近憂). 지금 멀리 내다보고 희망찬 꿈을 꾸지 않는다면 당신의 현재 또한 근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실 밥벌이의 현실 속에서 현재를 살아 내야만 하는 우리에게 꿈을 꾸는 일은 쉽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인터넷, SNS, 뉴스 등 일상 속에 소소한 자극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진지
 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란 더욱 쉽지 않다.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가 문득 찾아오는 미래에 대한 불
 안과 두려움에 우리는 갈팡질팡, 또다시 바쁜 일상 속에 몸을 맡기는 일상을 반복한다. 그렇게 행복은 우리에게
 게서 멀어진다.**
 UN이 발표한 세계행복보고서에서 행복한 국가 3위인 덴마크는 밥벌이를 위해 일을 선택하는 경우를 가장
 경계한다. 덴마크에는 고등학교 진학 전 대다수 학생이 '에프터스쿨레(영어로 애프터스쿨)'에 간다. 학생들은
 애프터스쿨에서 자신의 삶을 아주 느긋하게 설계한다.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삶을 살 것인지
 1년 동안 고민하면서 인생 계획을 점검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인생학교도 있어서 덴마크 사람들은 언제
 든지 학교로 돌아가 새로운 꿈을 준비할 수 있다.

**지금,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내 안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자. 삶이 재미없고, 무료하기만 하다면 지금
 즉시 '꿈 설계'에 돌입하자. 그리고 꿈꾸는 즉시 행동으로 옮기자. 시행착오도 좋다.**

꿈을 향한 도전은 그 자체로도 이미 설렘 넘치는 하루하루를 선물한다. 꿈을 이야기하는 김미경 이클래스 대
 표는 꿈을 실행한 그 하루가 데이터가 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루하루가 쌓여 내 머릿속 데이터로 축적되
 면서 막연했던 꿈이 실현가능한 꿈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꿈을 통해 내 인생의
 파릇파릇한 생기를 되찾자.

01. Dream

삶의 생기를
불어넣는
꿈을 꾸라

02. Introspection

내 안의
목소리를
들어라

하루 딱 삼십 분,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생각하다보
 면 어느새 콧노래가 흥얼흥얼~내 삶도 유쾌, 상쾌~
 스스로에게 끈질기게 물어봐야 한다. '내 꿈이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말이다.
 마음속의 자신과 대화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큰 동기부여가 된다. 학술지 '심리과학'에 게재된 한 연구에 따르
 면 스스로에게 동기부여가 될 만한 말을 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때 '~할 것이다'라고 단언하기
 보다 '나는 10년 뒤 무엇을 하고 싶은가'라는 식의 질문 형태로 말을 거는 것이 좋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하라. 그리고 자신과 대화하면서 몸이 서서히 움직일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스스로와의 대화를 통해 나 자신을 사랑하게 돼 모든 것이 선순환된다고 조언한다.**

정여진 심리치료사에 따르면 "삶에 대한 만족도와 행복도가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며
 "주어진 현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동시에 자신의 한계와 결점을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 역시 결점이 있음
 을 인정하며 그들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생각하는 나에 대한 믿음이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
 진 사람들은 꿈을 발견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원활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이 행복하고, 타인을 행복하
 게 하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03. Learning

삶의 질을
높이는
배움 활동

최근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신조어 '어모털족'이 늘어나고 있다. 어모털
 족이란 생물학적인 나이를 떠나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을 뜻한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유럽 총괄 편집
 장인 캐서린 메이어가 자신의 저서 '어모털리티(Amortality)'에서 만들어낸 신조어다.

어모털족의 삶을 들여다보면 '배움'을 놓칠 수 없다. 끊임없이 탐구하고 생각하고 도전하는 배움에 대한 열정
 으로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반복된 일상으로 소중한 하루를 무료하게 보낼 것인가? 지금 당장, 매일 매일을 설렘의 바다에서 헤엄치게 만
 들 배움에 몰입해보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나이 40세 이후에 라틴어와 그리스 고전을 배우기 위해서 그 언어들을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고대 로마의 정치인 카토는 고대 그리스 원전을 직접 읽어보기 위해서 80세 나이에 그리
 스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플루타르크 영웅전'은 기록하고 있다. 그들에게 배움은 끝이 없었고, 그 배움의 길에
 서 늙을 시간조차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끝까지 삶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슴 뛰
 는 두 번째 인생을 시작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오래된 광고 카피처럼 나이를 잊고 새로운 것을 배
 우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아보자. 배움이라고 해서 거창한 그 뭔가가 아니어도 좋다. 햇살가득 창가에 앉아 그
 동안 읽지 못했던 책에 담긴 지혜를 곱씹으며 삶의 '행복'을 찾아 나서는 것도 의미 있는 배움 활동이다.**

영양제 사용설명서

지치고 피곤한 바쁜 현대인들은 간편한 건강관리 방법으로 영양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영양제 몇 알과 물 한 컵이면 보약 한 첩 지어 먹은 듯 든든하다.

하지만 내 몸에 꼭 맞는 영양제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은 일.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영양제 선택법에 대해 전문가에게 물었다

눈 밑이 떨리면 마그네슘을 먹고, 피로가 느껴질 때 비타민 C를 찾는다. 그렇게 한 가지씩 어느새 내 손안엔 다양한 영양제가 가득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타민 A·B·C·D는 물론이고 오메가3, 아연, 철분, 칼슘 등 하루에도 십여 가지에 달하는 다양한 영양제를 섭취한다. 하지만 꼼꼼하게 따져보고 자신의 몸에 잘 맞는 영양제를 골라야만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식습관 개선을 통한 자연식품 섭취가 가장 좋다.

| check list | WE 클리닉 조애경 원장의 '똑똑한 영양제 섭취 Check Tip'

Check 1 영양제 복용 원칙

- 영양제를 섭취할 경우 기본적인 원칙은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한다.
- 미네랄은 위산이 분비되는 경우 흡수가 쉽고,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이나 기름기를 섭취하면 이동과 흡수가 용이하다.
- 셀레늄은 단독으로 복용하는 것이 흡수가 더 잘된다. 또한 고용량의 비타민C 중에서 알카리 성분인 아스코르브산염 형태의 경우 빈속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 비타민 B는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는데 향생제나 술 등은 흡수를 방해한다.
- 비타민 C는 음식이 위에 들어가 있을 때 흡수가 떨어지므로 시간을 좀 두고 복용한다.
- 비타민 B와 비타민C는 너무 공복에 먹으면 흡수되기도 전에 소변으로 배출될 수 있다.

Check 2 약물 상호 작용

- 칼슘과 철분은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떨어진다. 한 달씩 번갈아 먹거나 식전, 식후로 나눠 섭취하고, 비타민D의 경우 칼슘의 흡수를 높이며, 단백질 보충제는 칼슘 흡수를 방해한다.
- 철분과비타민E는비타민C를 함께 복용 시 흡수율이 높아진다.
- 칼슘, 마그네슘, 아연을 함께 복용하면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
- 오메가 3와비타민E는 함께 먹으면 흡수가 좋아진다.
- 비타민 A 복용 시 여드름 약을 사용하면 독성이 증가된다.
- 비타민 B2는비타민 E와 함께 복용하면 항산화 효과를 강화시키며,비타민 B1도 함께 복용시 시너지 효과가 있다.
- 비타민D는 고지혈증 약의 혈중 농도를 낮추며 이뇨제와 복용 시 고칼슘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

| Interview | 조애경 WE클리닉 원장의 '알짜배기 영양제 처방전'

내 몸에 필요한 영양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자신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무엇인지는 연령, 계절, 식습관, 질병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또 영양미네랄검사, 소변검사, 비타민, 유기산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기도 합니다.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자신에게 결핍된 영양소를 찾아내고, 여기에 부족한 영양소를 공급해 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식습관이나 생활환경 자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부족하거나 과잉인 영양소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성별, 나이별, 생활습관, 호소하는 증상, 질병의 유무 등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꾸고, 가능한 식생활에서 고르게 섭취하도록 하는 것이 어떤 건강 보조 식품보다 우선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영양제 제대로 선택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인 영양소의 보충과 함께 자신에게 가장 부족한 것을 찾아내어 공급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요. 이러한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우선은 건강에 유익한 영양 식사를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품 섭취가 힘들 경우 영양제로 부족한 영양소를 채워주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담배를 피다면 비타민C가 더욱 필요하고, 술을 자주 먹는다면 티아민과 피리독신 염산을 보충해주어야 하죠. 피임약을 먹는다면 비타민 B6(피리독신), 엽산, 비타민 B12, 비타민C의 부족이 올 수 있으며, 다이어트를 한다면 필수아미노산과 비타민 B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날이면 비타민 C와 B, 마그네슘의 소모가 많으므로 보충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피부 톤이 칙칙하고 기미 잡티가 나며 쉽게 피로감이 있다면, 자기 생활을 점검해 양질의 식사를 하고 있는지, 스트레스는 없는지, 카페인이나 약물, 음주, 흡연 등은 없는지를 따져보고, 이러한 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 원인에 의해 어느 한 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영양 상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개선책을 계획하는 것이 좋으며, 현재 어떠한 증상이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자신의 미네랄 불균형을 체크해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양제 섭취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영양제를 너무 과신하지 말고 가능한 천연 식품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자신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우선이구요. 영양제를 섭취할 경우,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건강보조식품은 대부분 많이 복용해도 약과는 달리 큰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물죠. 그러나 보통 미네랄이나 비타민 등 영양제를 복용하고자 할 때는 뭔가 몸에 불편한 증상이 있어서 복용하게 되는데, 다른 질병에 의한 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먼저 복용 전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로 치료해야 할 질환은 없는지, 영양제가 자신의 몸에 해롭지는 않은지 확인한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아요. 영양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한 후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 건강 기능식품간의 상호작용, 복용 원칙 등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른한 오후 차 한 잔, 행복 두 스푼

오후 두 시, 점심을 먹고 바쁜 일을 끝내놓고 나니 잠시의 여유가 찾아온다.
라디오에선 조안나 왕이 부르는 'Aubrey'가 흘러나온다.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차 한 잔을 마신다.
창밖의 초록 나뭇잎들을 잠시 바라본다.
차 한 잔과 음악,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하는 이 시간, 잔잔한 행복이 흐른다.

차를 마시는 시간의 의미

티타임, 바쁜 일상에 몰입을 하다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는 시간이다. 혼자서 차를 마실 땐,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다. 진정으로 시간을 누리는 것 같은 행복감이 찾아온다. '차 한 잔 하자'. 일하는 짬짬이 동료들이 다가와 하는 말, 그 말에는 휴식부터 진정한 소통까지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다. 영어로 차를 마시는 시간인 '티타임(tea time)'은 차의 시간을 의미했지만, 휴식의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커피 브레이크(coffee break)나 티 브레이크(tea break)'는 단순히 커피를 마시고 차를 마시는 시간이 아닌, 오전 오후의 중간 휴식 시간을 의미하는 말이 됐다. 하루 중 진정으로 나를 위한 시간이다.

삶의 작은 일탈

사무실 공기가 유난히 답답하게 느껴질 때, 가슴이 체한 듯 막혀서 오감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면 근처 작은 카페로 가보자. 에스프레소 마키아토를 시킨 후 머랭쿠키를 곁들인다. 그 카페에는 일상을 벗어난 재미난 이야기를 담은 잡지가 몇 권쯤 있을 것이다. 누군가의 여행기록을 담은 책도 한권에 꽂혀 있을 것이다. 날씨가 유난히 뜨겁다면 시원한 아이스페퍼민트를 마셔보자.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인 마음을 잠시 식혀줄 것이다. 친जन만한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오독오독 얼음을 씹어 먹는다. 골칫거리 일상은 저 멀리 두고 나오자. 내 삶의 작은 일탈을 즐겨보자. 방전된 행복이 찾아 올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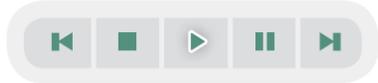
우정을 쌓는 '티 파티'

유럽의 티 파티는 포르투갈에서 영국으로 시집을 온 캐서린 공주로 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당시 영국에는 없던 차와 설탕을 이용한 티 파티는 영국의 상류 사회 부인들에게는 신선하게 다가왔다. 왕실과 귀족들의 사교모임으로 시작된 티 파티는 점차 서민층에까지 확대됐다. 애프터눈 티(afternoon tea)는 제7대 베드포드 공작부인인 애나 마리아 스티븐슨에 의해 시작됐다. 당시 영국에서는 아침은 푸짐하게 먹고 점심은 간단하게 때웠다. 저녁 시간은 오후 8시였는데 당연히 배가 고평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오후 5시에 베드포드 공작부인은 '축 가라앉는 기분(sinking feeling)'이 든다며 하녀에게 차를 포함한 다과를 준비시켰다. 부인은 오후에 마시는 차가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는 것을 알게 됐고, 다과회에 친구들을 초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모임은 런던 전역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했고 이것이 애프터눈 티의 출발점이 되었다. 영국에서 애프터눈 티에 초청되는 것은 우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티타임과 케미스트리를 만드는 음악

- ▶ **Everything At Once** ♪ 렌카(Lenka)
- **Talullah** ♪ 자미로콰이(Jamiroquai)
- **Out Of Tune** ♪ 사라 맥라클란(Sarah McLachlan)
- **Secrets** ♪ 마리아 메나(Maria Mena)
- **If A Song Could Get Me You** ♪ 마릿 라슨(Marit Larsen)
- **The River** ♪ 카일라 라 그란지(Kyla La Grange)
- **Enjoy The Silence** ♪ 팀 크리스티슨(Tim Christensen)
- **Night Bus** ♪ 루시 로즈(Lucy Rose)
- **Games People Play** ♪ 리씨(Lissie)
- **I'm In Here** ♪ 시아(Sia)
- **Aubrey** ♪ 조안나 왕(Joanna Wang)
- **Half Life** ♪ 이모겐 힙(Imogen Heap)

참고: 티타임(소니뮤직)



시간별 티타임

- AM 6:00**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찍 마시는 차를 **얼리 모닝 티(early morning tea)**라고 한다.
- AM 7:00** 브렉퍼스트 티(breakfast tea)는 아침 7시 즈음에 식사와 함께 즐기는 차다.
- AM 11:00** 일레븐즈 티(elevenes tea)는 오전 11시에 가볍게 마시는 차다.
- PM 12:00** 미드 티(mid tea, lunch tea)는 점심식사와 함께 즐기는 차로 달콤한 과일 홍차를 주로 즐긴다.
- PM 5:00** 애프터눈 티는 귀족층에서 시작된 만큼 화려하고 푸짐하게 즐기는 티타임이 특징이다.
- PM 6:00** 하이 티(high tea)다. 고기류가 함께 제공되어 **미트 티(meat tea)**라고도 한다.
- PM 8:00 ~ PM 9:00** 애프터디너 티(after dinner tea)는 저녁 식사 후에 느긋하게 즐기는 티타임이다. 티에 위스키나 브랜디를 넣어 마시기도 하는데 주로 남성들의 사회적 티타임이다.
- PM 10:00 ~ PM 12:00** 나이트 티(night tea)는 잠자리에 들기 전 차에 따뜻한 우유를 넣어 마신다.



연금저축계좌 이동 간소화 됐는데 해야 되나

4월 27일 시행된 연금저축계좌 이동 절차 간소화제도로 연금저축 계좌 갈아타기가

한결 수월해지면서 연금저축가입자와 금융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연금저축계좌 이동을 고민하고 있는 가입자라면 계좌 이동전에

자신에게 적합한 연금저축상품이 무엇인지 꼼꼼히 체크해보자.



연금저축계좌를 이동하고자 하는 가입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재무상황, 금융사별 연금저축계좌의 특성, 노후 활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연금저축 상품을 선택해 이동해야 한다.

연금저축계좌 이동 절차 간소화 제도가 4월 27일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시행과 더불어 연금저축가입자 및 금융사들의 주요관심사가 되고 있다. 연금저축계좌 이동 절차 간소화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기존 연금저축상품이 수익률 저조 등으로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연금저축계좌를 이동하고자 하는 금융사 한곳만 방문함으로써 기존계좌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규가입 예정 금융사 한곳만 방문함으로써 다른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저금리의 진행 등으로 노후 미래설계 및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금저축 가입자들에게 연금저축상품 선택의 폭을 크게 넓혀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금융사들은 이번 제도의 시행을 연금저축 고객의 확보 기회로 생각하고 있어 연금시장에서 연금저축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경쟁이 한층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 간소화 시행으로 연금저축펀드로의 이동 상대적으로 활발할 듯

연금저축계좌 이동제도는 2001년 3월 처음 도입되어 시행되었다. 도입취지는 연금저축 가입자의 상품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서였다. 연금저축 상품은 장기간 유지되어야 하는데 금융사별로 취급하는 상품의 특성이 달라 가입자의 라이프사이클, 금융 및 경제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금융사를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입취지와는 달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보였다. 금융사별 전출건수를 기준으로 금융사 간 이동 건수는 2013년 상반기 4,869건, 2014년 상반기 8,650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전체 가입건수의 1%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연금저축계좌의 이동을 위해 금융사를 2회 이상 방문해야 하는 등의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에 크게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실효상태에서 연금저축보험계좌의 이동 불가(2014년 4월 개선), 이동시 일부 금융사의 5,000~50,000원까지의 수수료 부과, 금융당국 및 금융사들의 홍보부족 등도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계좌 이동 절차 간소화는 그동안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계좌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2회 이상 금융사를 방문해야 했던 것을 한번 방문으로 이동 절차가 완료되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가입자가 신규 가입예정 금융사와 현재 거래 금융사를 방문해서 각각 신규계좌 개설 신청, 계좌이체 신청을 해야만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신규 가입예정 금융사만 방문함으로써 계좌개설 및 계좌이체 신청을 한꺼번에 처리해 이동 절차를 마무리 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즉 가입자는 신규 가입예정 금융사를 방문해 신규계좌 개설, 이체 신청서 작성, 이체 시 유의사항 확인 후 서명만 하면 계좌의 이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금융사는 신규 가입예정 금융사의 경우 기존 가입 금융사에 이체 요청을 통해 환매자금의 송금을 받게 되고, 기존 가입 금융사는 가입자와 전화통화로 계좌이체 의사를 확인하고 가입자의 신규 가입예정 금융사로 환매자금을 송금해주게 된다. 반면 2000년 말까지 판매된 구(舊)개인연금저축 상품 가입자는 계좌를 이전하고자 할 경우 연금저축계좌로 이동이 불가능한 대신 신규 가입 금융사의 구(舊)개인연금저축으로만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동전에 신규 가입 금융사가 구(舊)개인연금저

축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연금저축계좌의 이동 간소화 시행으로 연금저축펀드로의 계좌 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과 같이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입자들의 수익률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어 연금저축펀드가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연금저축신탁이나 연금저축보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연금저축 10년 누적 수익률에서도 연금저축펀드가 타 상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계좌 이동을 하게 되면 초기 수수료 발생으로 적은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품가입 기간이 통상 7년 이하인 가입자의 경우 계좌 이동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보험과 연계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라면 더 큰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 이동을 더더욱 꺼릴 수 있다. 따라서 연금저축펀드로의 계좌 이동은 보다 활발해지겠지만 각 연금저축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제한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금융사간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 간소화가 시행되면서 증권사들이 이번 기회를 고객확보를 위한 기회로 생각하고 다양한 이벤트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금융권이 연금저축 가입자 유치를 위한 치열한 마케팅 경쟁이 한층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설계, 금융사별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연금저축계좌 이동 이뤄져야

연금저축계좌 가입자는 현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연금저축상품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이번 간편화된 계좌 이동 제도를 활용해 볼 만하다. 그렇지만 연금저축계좌를 이동하고자 하는 가입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재무상황, 금융사별 연금저축계좌의 특성, 노후 활용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자신에게 적합한 연금저축 상품을 선택해 이동해야 한다. 먼저 계좌의 이동에 앞서 재무측면에서 자신의 미래설계를 세워보고, 거기에 맞도록 계좌 이동 결정을 해야 한다. 즉 현재 노후준비 상태를 점검해 보고, 이를 토대로 미래설계를 한 후 적절한 연금저축 상품을 선정하여 계좌 이동을 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미래 노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사적연금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타 금융상품과는 달리 장기적 측면이 크게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연금저축이 금융사별로 상품의 특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계좌 이동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연금저축 상품은 납입방식, 적용금리, 연금수령기간, 원금보장, 예금자보호 등에 있어서 금융사별로 큰 차이가 있다. 일례로 상품의 납입 방식을 보면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펀드는 자유납입 방식인 반면 연금저축보험은 정기납입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연금저축보험으로 이동을 생각한다면 현재 납입유예제도가 도입됐지만 제한적이기 때문에 정기납입을 위해 미래 정기적이면서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가능한지를 따져봐야 한다. 또한 선택할 상품의 수익률과 그에 따르는 위험수준을 비교분석해 자신의 위험태도에 적합한 상품인지도 잘 살펴봐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연금저축계좌의 복수계좌 보유도 적극 고려해봐야 한다. 복수계좌의 보유를 통해 금융사 및 상품 간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의해 보다 안정적으로 연금저축계좌의 관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금저축보험과 같이 조기 계좌 이동을 할 경우 높은 초기수수료 발생으로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금액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좌 이동에 따른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 복수계좌의 보유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금융사는 고객에 대한 노후 컨설팅을 통해 니즈에 맞는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

금융사들은 무엇보다 고객의 미래설계 상황을 고려한 후 각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금융사들은 각 고객에 대해 맞춤형 노후 미래설계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노후 미래설계 컨설팅을 통해 각 고객의 노후준비 상황, 필요상품, 투자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가장 적합한 연금저축 상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다양한 수익성과 위험을 가진 상품클래스를 개발해 고객의 다양한 위험수준에 따른 니즈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당국은 상품들의 비교평가를 위한 인프라확충 필요

정책당국은 연금계좌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금융사의 상품들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론 금융사들이 연금저축 비교공시를 통해 수익률, 수수료율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 제공하고 있는 정보만으로는 상품을 비교 선택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상품의 수익률에 대한 위험수준, 고객이 납입한 원금대비 실제 수익률 등의 공시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일반 연금저축 가입자의 눈높이에서 상품들이 비교 평가될 수 있도록 상품들에 대해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 수준에 따라 다양한 클래스로 구분해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시행된 연금저축계좌 이동 절차 간소화가 노후를 준비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가입자들이 자신들에게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편리성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구조적 장기침체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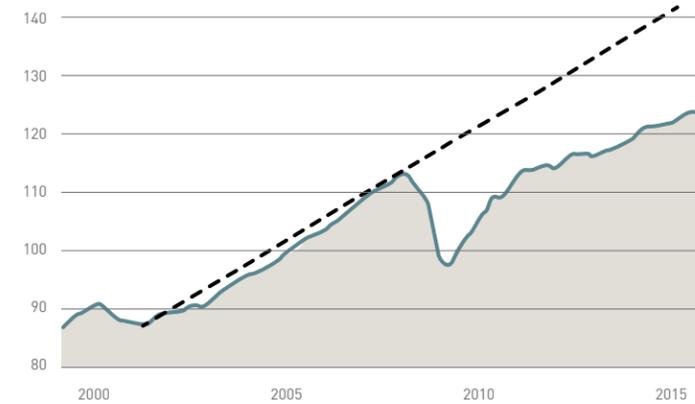
세계 경제에 또 다시 먹구름이 드리울 것인가. 최근 세계 경제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구조적 장기 침체론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찬성과 반대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구조적 장기 침체론자들은 정부의 개입에 의한 공공 인프라 투자를 선호하고 있고, 반면 버נק키 등은 저금리 정책이 결과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구조적 장기침체론'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론'은 1938년 하버드대학교 앨빈 한센(Alvin Hansen) 교수가 전미 경제학 회의 학회장 연설에서 '경제 진보와 인구성장의 감소'라는 주제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대공황 말기라는 암울한 시대상황을 반영해 한센 교수는 인구성장의 둔화와 기술혁신의 부진으로 기업이 새로운 자본재에 투자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됐고, 억눌린 가계소비와 투자지출 부진으로 상당기간 완전고용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만성적 경기불황)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한센의 주장은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에 따른 특수로 미국경제가 회복되면서 현실에서 증명되지 못했다.

전후 세계경제의 부흥과 베이비붐 세대의 등장으로 인한 인구의 폭발적인 성장, 급격한 기술진보 등으로 세계경제가 고도성장을 지속하면서 한센 교수의 주장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구조적 장기침체론'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로렌스 서머스 전(前) 재무장관이 2013년 11월 IMF 회의에서 "대폭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성장세도가 예상했던 것 에 비해 낮다. 미국경제가 정상적인 성장세도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구조적 장기 침체론에 불을 지폈다. 이후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 스탠리 피셔 미(美) 연준 부의장, 올리버 블랑샤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리처드 쿠 노무라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등이 서머스의 주장에 동조하거나 우호적인 견해를 밝히면서 '구조적 장기침체론'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기 이전 성장추세를 회복하지 못하는 세계경제



자료 : CPB

공공인프라 투자를 통한 생산성 확대와 총수요 회복이

구조적 장기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

'구조적 장기침체론'에 동조하는 학자들의 주장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이들은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노동증가율 감소, 기술혁신 둔화, 자본투자 감소와 같은 장기적(Secular) 공급요인에 의해 성장 잠재력이 축소되고 있다고 본다. 둘째, 금융버블 붕괴 이후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금융시스템의 신용공급 축소, 재정지출 축소, 금융위기 이후 위험회피 성향의 증가 등으로 인한 수요의 정체(Stagnation)로 성장회복이 지연되거나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본다. 즉 최근의 경기부진 장기화는 단순한 금융위기로 인한 부작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의 결과이며, 만성적인 수요부진으로 버블의 발생 없이는 경제가 충분한 수요를 창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이들은 수요의 정체로 인해 저물가 또는 디플레이션 상황이 만연하게 되고, 명목금리가 제로수준까지 하락하더라도 실제 실질금리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금리인하와 같은 통화정책을 통한 수요 진작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양적완화와 같은 비정상적인 통화정책의 경우 아무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자산버블을 발생시키고 부실기업의 퇴출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넷째, 통화정책이 무력하기 때문에 공공인프라 투자와 같은 공격적인 재정확대 정책을 지지한다. 공공인프라 투자를 통한 생산성 확대와 총수요 회복이 '구조적 장기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버냉키 전 의장은 미국경제가 완전고용으로 가고 있다며 장기침체 주장을 일축

반면 '구조적 장기침체론'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학자는 벤 버냉키 전(前) 연준의장이다. 최근 블로그(<http://www.brookings.edu/experts/bernankeb/>)를 개설한 버냉키는 온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조적 장기 침체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케네스로그프 하버드대 교수도 구조적 장기 침체를 부정).

먼저 버냉키 전 의장은 미국경제가 느리지만 완전고용으로 가고 있다며 미국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졌다는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또한 버냉키 전 의장은 설명 미국이 장기침체에 빠졌더라도 침체국면의 원인과 적절한 대책에 대해 일관성 있게 '구조적 장기침체론'과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버냉키 전 의장은 현 경기침체 국면을 '과잉저축 가설(Savings Glut Hypothesis)'로 설명했다. 1990년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아시아를 포함한 각국(특히 아시아 수출국과 중동 산유국)이 투자 대신 저축(외환보유액)을 과도하게 늘리면서 유동성이 돌지 않는 것이 이번 침체의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현재의 침체국면은 장기적·구조적 공급요인 때문이라기보다 일시적·순환적 측면이 높기 때문에 적절한 통화정책과 각국의 투자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가능하다는 것이 버냉키 전 의장의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6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신흥국의 초과저축은 중국의 수출의존도 약화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감소 중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버냉키 전 의장은 '구조적 장기침체설'이 해외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세계화로 인해 국내 상황이 어렵더라도 수익성 있는 해외투자가 가능할 경우 유동성 유출로 달러화가 약세가 되고, 이는 다시 수출을 늘려 고용과 생산을 확대시키는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글로벌 개방경제하에서는 개별 국가단위에서의 '구조적 경기침체론'을 주장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장기침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버냉키 전 의장은 정부부채가 이미 역대 최대수준으로 많으며 공공투자의 수익성 또한 결국 체감하는 것으로 들어났기 때문에 공공지출 확대 등의 재정확대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한 경기부진이 아니라 일시적 소비 및 투자부진으로 인한 경기부진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와 유동성 공급 정책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키는 것이 결과적으로 경제를 회복세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조적 장기 침체론자들은 정부의 개입에 의한 공공 인프라 투자 선호,

반면 버냉키 등은 저금리 정책이 결과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주장

'구조적 장기침체론'을 주장하는 학자와 부정하는 학자들은 어찌 보면 같은 현상을 보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구조적 장기 침체론자들은 인구성장 둔화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총수요 부족으로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통화정책으로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버냉키 등은 과거에도 그랬듯이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과 상황대처 능력으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버냉키는 "실질금리가 무기한으로 마이너스 수준에 머물 것이라 기대된다면, 모든 투자가 수익을 거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언덕을 오르내리는 기차와 차가 낭비하는 기름을 절약하기 위해서 록키산맥을 깎아 내는 투자도 가능하다."라는 폴

새뮤얼슨의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같은 현상을 보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서머스 등의 '구조적 장기 침체론자'들이 대부분 케인즈학파인 반면, 버냉키 전 의장은 통화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케인즈 학파는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며 장기적으로 경제질서가 결국 복원된다는 '고전학파'의 '자유방임' 주장을 일축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재정지출 확대)을 옹호해 왔다. 따라서 '구조적 장기 침체론자'들도 구조적인 위기의 해법으로 정부의 개입에 의한 공공인프라 투자를 선호하는 것이다.

반면 통화주의자들은 정부개입의 부작용에 주목하고 준칙에 의한 통화정책을 옹호한다. 따라서 연준의 의장을 지낸 버냉키가 재정지출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저금리 정책이 결과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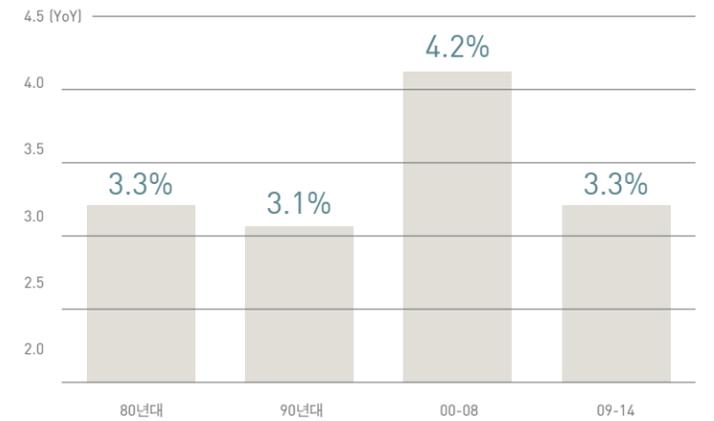
최근의 성장부진이 장기적·구조적 요인 때문이던,

과잉저축 때문이던 상관없이 투자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 높아

현재의 세계경제 상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성장 잠재력이 추락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이 '구조적 장기 침체론자들이 주장하듯이 장기적·구조적 공급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버냉키 전 의장이 주장하듯이 과잉저축으로 인한 일시적·순환적 현상인지'는 불확실하다. 다만 글로벌 과잉저축이 외화를 쌓아두려는 아시아 신흥국의 중상주의적인 특징과 중국경제의 독특한 성격에 의한 것일 경우 과잉저축에 의한 투자부진은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이의 해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투자부진 장기화로 인한 성장둔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한편 현재의 성장부진이 금융위기 이전의 이례적인 고성장으로 인한 착시 현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세계경제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전(2000~2008) 4.2%에서 이후(2009~2014) 3.3%로 0.9%p 하락했으며, 세계무역 성장률 역시 6.8%에서 3.1%로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80년대(3.3%)나 90년대(3.1%) 성장률과 비교해 볼 때 금융위기 이후의 성장률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금융위기 이전의 성장률이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및 2001년 911사태 이후 저금리 장기화와 이로 인한 자산가격 급등과 같은 특수요인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높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최근의 성장부진은 금융위기 이전의 이례적인 고성장으로 인한 착시효과일 가능성이 높다.

시기별 세계경제 성장률 비교



자료 : IMF

글로벌 금융 불안의 순환, 우리 경제의 안정성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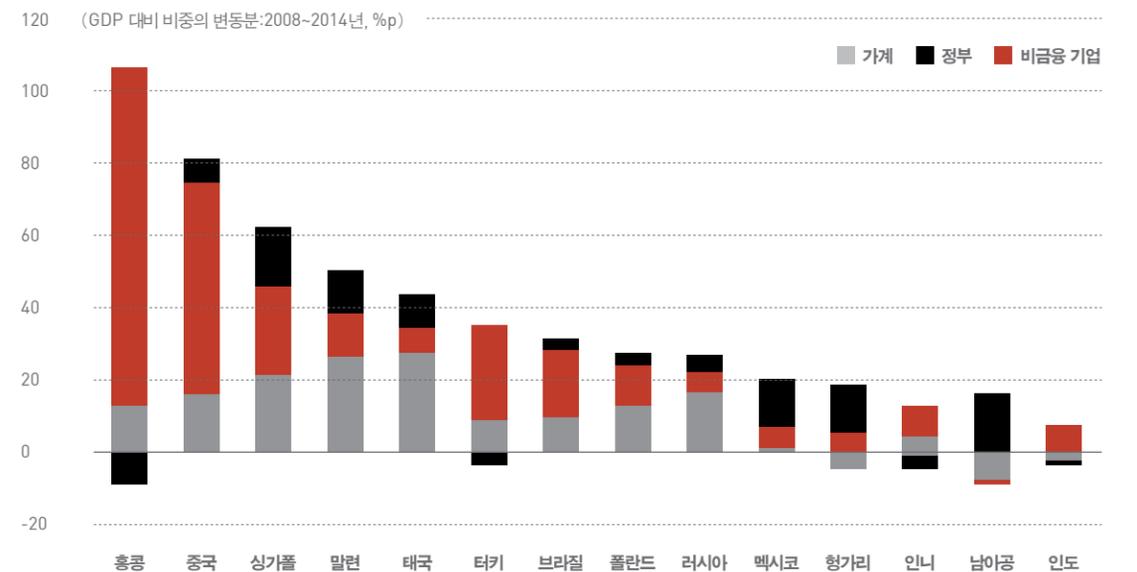
대내외 금융시장 호조에도 글로벌 금융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다. 글로벌 유동성 제2국면 및 금융안정과 관련된 위험들이 새로운 영역으로 순환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의 위험 속성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과거의 위기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 경제의 안정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대내외 금융시장 호조에도 새로운 위험 지속

국내외 금융시장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증시가 사상최고치 경신 등 신기록을 양산하고 있고,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우리나라 증시도 최근 강한 상승 모멘텀을 시현하며 코스피가 4년래 최고치, 코스닥은 7년래 최고치를 넘어섰다. 대내외 채권금리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사상 최저치 수준에 불과하다. 나아가 글로벌 달러화 초강세도 진정되면서 유로화, 엔화 등 주요 통화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원화 역시 마찬가지로 지인데,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치를 내려서면서 이제는 원/엔 환율도 900원선이 위태로운 지경이다. 이런 가운데,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적 참사로 간주되던 글로벌 금융위기의 악몽도 이제는 점차 기억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오히려 금융위기 잦아들고 보면, 지금 세상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즉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의 불안을 세계적 위기로 확산시켰던 국제 은행권 부실은 대부분 해소되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세계 주요 은행들은 위기 이후 최고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앙이었던 부동산 시장도 미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다시 들쭉이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충격은 벗어났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새로운 불안이나 위험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 등 일부 선진국 금융시장의 안정 회복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부도 위험 재발을 비롯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중동의 긴장 지속과 유가 급락, 나아가 세계경제의 재 둔화 위험 등 다양한 불안요인들이 켜진 상황이다. 금융 측면만 보더라도, 세계적으로 자산시장의 과열 우려가 커진 것은 물론, 중국의 '그림자금융' 불안을 필두로 러시아나 브라질 등 신흥시장의 기업부채 급증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2008~2014년 중 신흥시장의 부채 급증



• 주: 홍콩과 싱가폴은 중국 등 아시아 신흥시장의 외부 자금조달 통로로서 포함 • 자료: IMF



글로벌 유동성 제2국면과 금융 불안의 순환

‘글로벌 금융의 파수꾼’을 자임하는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 발간한 ‘글로벌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국제적 차원에서 금융안정과 관련된 위험들이 새로운 영역으로 순환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① 그동안 선진국에 집중되었던 금융안정 상의 위험이 신흥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은 물론, ② 대형 은행권 위주의 부실 문제가 이제는 비은행권 혹은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으로 이전되고, ③ 과거에는 주로 지급불능(즉 부도) 위험이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시장 유동성 위험이 글로벌 금융 불안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선진국 은행권의 부도 위험으로 집약되었던 문제가 이제는 신흥시장의 기업 부채, 특히 채권시장의 유동성 위험으로 전환되고 있는 셈이다. 사실 2013년 연준의 출구전략(이른바 ‘버냉키 쇼크’)과 관련된 우려로 신흥시장이 이동 천 데 이어 그 여진 혹은 새로운 형태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그 탓이다. 그 핵심에는 과거처럼 선진국 은행권으로부터의 차입보다는 선진국 기관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 자금유입(특히 채권)에 따른 취약성이 자리 잡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위기에 초점이 맞춰진 렌즈로는 지금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새로운 위험들, 혹은 글로벌 금융 불안의 속성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기 힘든 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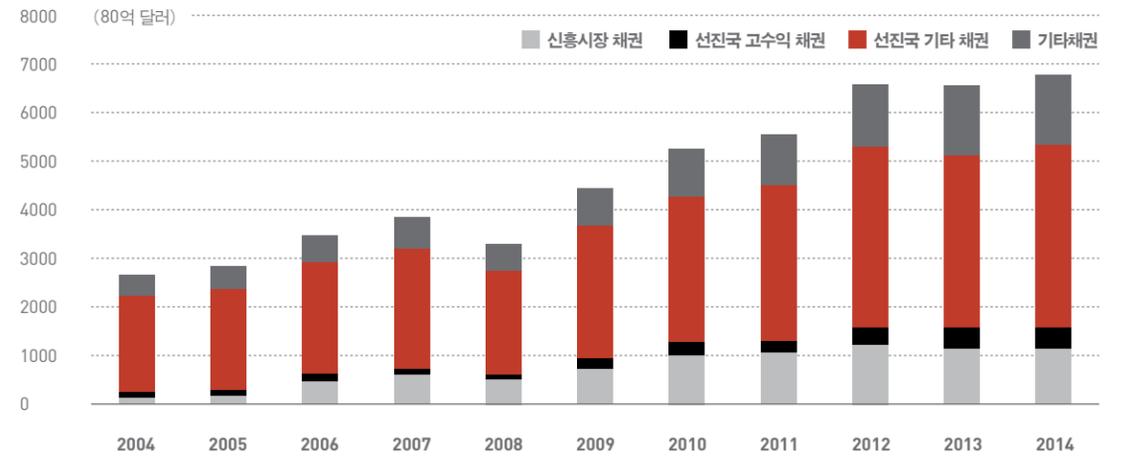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국제경제보좌관을 역임한 바 있고 현재 국제결제은행(BIS)의 수석이코노미스트를 맡고 있는 신현송 박사는 ‘글로벌 유동성의 제2국면’에 주의를 환기시킨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0년대 중반만 해도 글로벌 유동성이 선진국 대형 은행의 능동적인 신용 창출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2010년부터는 채권시장 주도의 신용 성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이제는 은행이 아니라 선진국의 초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주요 자금 공급원 역할을 맡는 한편, 저수익률 시대의 고수익 투

자처로서 신흥시장 기업들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신 박사는 이제 신흥시장 회사채가 핵심적인 취약 고리가 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시장 유동성(Market Liquidity)’이 문제 되는 것도 이런 연유다. 시장 유동성은 언제라도 시장에서 매매를 통해 쉽게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뜻, 즉 환금성을 의미한다. 시장 유동성이 가장 뛰어난 곳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국채 시장이다. 그런데 지금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펼치는 양적완화는 주로 국채를 매수·보유하는 것이다. 그만큼 국채 거래량이나 유통량이 줄어들게 된다. 게다가 각종 규제 강화와 맞물려 은행권이 여전히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몸을 사리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수요와 공급 간에 불균형을 조정할 책임, 즉 ‘시장조성(Market Maker)’ 기능도 위축되고 있다. 시장 충격이 발생할 때 정상적인 거래를 뒷받침할 여력이 떨어진 것이다. 이런 사정은 비단 선진국 국채만이 아니라 신흥국이나 회사채 등으로 번지고 있다.

한편 은행을 대신해 자산운용사가 글로벌 유동성의 주요 공급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점은 일단 자금조달원의 다양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자산운용사도 단기 실적(특히 시장성과 대비)에 치중하는 인센티브 구조나, ETF 등과 같은 각종 금융지수 연계 상품의 도입에 따라 투자 흐름의 동조화나 쏠림현상과 같은 취약점을 지닌다. 특히 신흥시장은 협소한 시장 규모로 인해 대형 자산운용사들의 이런 행태에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나아가 신흥국의 기업 부채와 같은 경우에는 역외 계열사를 통한 자금 조달이나 허위 송장처리에 기반 한 위장 자금유입 문제 등으로 인해 제대로 실체가 포착되지 않는다. 중국이 그 단적인 예다. 사실 오늘 날 글로벌 금융의 불확실성이 응축된 고리가 이처럼 비 은행권의 그림자 금융, 특히 기업들이 해외에서 채권 발행 등으로 조달한 외화(주로 달러 표시) 부채인 셈이다.

세계 채권펀드의 투자 대상 운용자산



• 자료 : IMF

우리 경제의 안정성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때

우리나라는 그동안 여러 차례 위기를 거치면서 외환 부문의 건전성 제고를 비롯해 전반적인 거시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비록 중국의 경착륙 위험 등 대외 경제여건의 약화나, 대내 인구 노령화 등의 구조적 제약들 탓에 국내 경제성장의 눈높이는 낮춰지고 있지만, 적어도 대외발 금융 충격에 대해서는 어느 신흥국과 달리 상당한 면역력을 키워 온 것이다.

최근 무디스의 우리나라 신용전망 사항은 물론, 대외신인도의 실시간 척도라고 할 국내 CDS 프리미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내려선 점이 이상의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에 대해 상대적 의미에서 ‘중안전자산’이라는 평가도 이어진다. 다만 글로벌 금융의 위험 속성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과거의 위기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 경제나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국내 기업의 경우

해외 자금조달은 대부분 국영기업이나 우량기업에 국한되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는 없다. 그러나 여전히 담보 상태를 면치 못하는 가계부채 문제나 한계기업들의 취약한 재무여건 등 내생적 취약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그동안 국제적 차원의 채권 포트폴리오 재조정과 맞물려 국내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특히 자산운용사)도 늘어난 데다, 최근 국내에서도 수익률 제고를 목적으로 ETF나 ELS 등 각종 신종 금융상품의 발행이 증가하고 사모펀드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 투자업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위험 소지를 낳고 있다.

이제 우리도 국내 금융시장의 회복에 열광만 하기보다는 이처럼 글로벌 차원에서 금융 불안의 순환 혹은 그 성격 변화와 같은 새로운 트렌드와 맞물려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불안요인의 부상에 대해서도 신중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봄기운 완연한 서울 재건축아파트 시장

서울시내 재건축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재건축 규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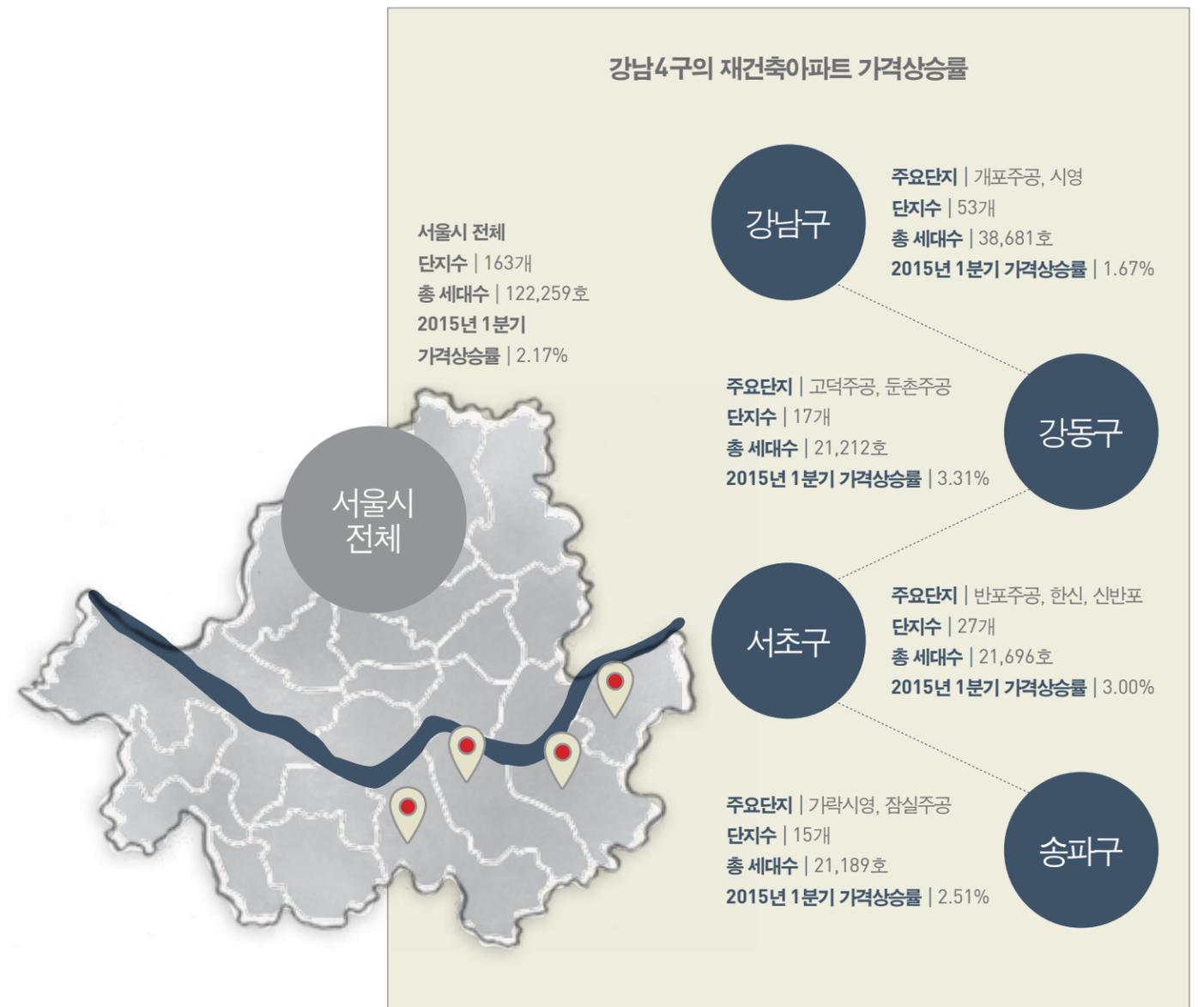
대폭 완화된 덕분에 재건축 사업진행에 탄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분양시장 호조세에 힘입어 사업수익성 제고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한몫하고 있다.



서울시내
재건축아파트
가격상승폭 확대

서울시내 재건축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2014년 12월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전월대비 가격변동률은 올 들어 플러스로 전환되었고, 가격 상승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2015년 3월 1.0%를 기록했다(부동산 114 아파트매매지수 기준). 금년 1분기에만 2.2% 상승한 것인데, 이는 서울시내 일반아파트의 가격상승률(0.8%)에 비해 두드러진 수치다. 특히 대단지 재건축사업이 집중된 강동(둔촌주공, 고덕주공 등 총 21,212세대), 서초(반포주공, 한신 등 21,696세대) 지역에서는 단지에 따라 매매가격 상승폭이 수천만 원을 넘나들며 재건축시장의 상승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해 이어진

규제완화의 영향으로

사업진행

본격화된 탓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온 서울시내 재건축아파트 가격은 2014년 이후 차츰 회복기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2014년 6월 LTV·DTI 완화 이후 전반적인 주택시장 회복세가 확산된 데다, 잇따른 7.24대책, 9.1대책으로 과거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되었던 재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재건축 소형의무비율이 폐지되면서 시장참여자들 사이에 수익성 제고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 기준완화 등 사업진행 요건이 대폭 완화되었다. 더욱이 12월에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됨에 따라 초과이익 환수 유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1인1가구제 폐지가 이뤄졌다. 그간 재건축사업 진행의 걸림돌이었던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서울시내 재건축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 영향으로

수익성 제고

기대감도 한몫

규제완화의 영향과 더불어 수도권 분양시장의 흥행 열기는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에 충분했다. 위례, 미사를 중심으로 시작된 수도권 신규분양시장의 활기는 지난해 청약제도 개편 이후 더욱 뚜렷해졌고, 실제로 재건축아파트 일반분양의 청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실제로 지난 9월 진행된 아크로리버파크(舊신반포1차) 제2차 일반분양의 청약경쟁률은 역대 최고 분양가(3.3m2당 5천만원)에도 불구하고, 평균 17대 1을 기록해 완판에 성공했고, 아크로힐스논현(舊경복아파트), 레미안대치청실(舊청실)일반분양에 대한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면서 앞으로 진행될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켰다. 게다가 지난 4월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재건축 일반분양가 인상에 따른 사업수익성 제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 서울시내 재건축아파트 가격의 오름세는 규제완화의 결과로 사업진행 속도가 빨라진데다 분양시장 호조세에 힘입어 사업수익성 제고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 변화,

규제리스크 고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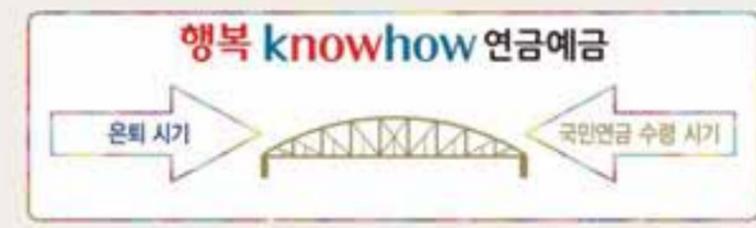
신중한 접근 필요

그 동안 재건축아파트의 주된 수요층은 자금여력을 갖추고, 투자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50대 이상 연령층이었다. 통상 3~5년에 걸친 사업기간 동안 자금소요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시장 전반에 걸쳐 가격상승에 대한 전망이 약화되고, 실수요 중심으로서의 시장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아파트의 수요기반 역시 실수요에 치우쳐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거래가격에 민감한 이들의 특성상 일반분양으로 인한 사업수익 증대가 제한적일뿐 아니라 과거와 같이 추격매수로 인해 가격이 좀 더 오르길 기대하기도 어렵다. 아울러 최근 재건축 이주로 인한 전세가격 상승 우려가 확산되면서 서울시가 재건축아파트 이주시기 조정방침을 내놓는 등 규제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재건축아파트 투자의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물론 큰 흐름에서 규제완화의 부동산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주택문제는 워낙 다양한 이슈가 얽혀 있는데다 최근의 재건축시장 활황세가 잇따른 규제완화 등 정책효과에 좌우된 점을 감안하면, 어쩌면 규제리스크에 대한 고려는 기우가 아닐 수도 있다. 2010년 이후 오랜 냉각기를 지나 찾아온 봄볕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아파트 투자에 나서기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듯하다.



빛고 채운한 이마지를 지은 모티브로 표현한 행복나무는 고객님의 변명과 외환은행의 다양한 혜택이 만나 큰 나무로 자라는 것을 상징하 하였습니다. 반쯤은 나무처럼 행복하면 늘 행복한 고객님의 동반자가 되고 싶은 영원을 담았습니다.

퇴직금 등 목돈 예치후 매월 생활비를 든든하게 수령하고~
국민연금 수령시기에는 만기해지금액을 높여서 만기 목돈수령의 기쁨까지 누리세요!



- ▶ 상품명 : 행복knowhow연금예금
- ▶ 계약기간 : 1년이상 5년이내 (연단위)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 가입금액 : 1백만원이상 제한없음
- ▶ 예금종류 : 정기예금
- ▶ 적용금리 : 기본금리 + 우대금리

(15.03.25 기준,세전)

기본금리	연1.75%	우대금리 (최대)	연0.1%	적용금리 (최대)	연 1.85%
------	--------	-----------	-------	-----------	---------

- 기본금리 : 가입일 또는 매년 가입일 해당일의 고사금리 (매년단위로 변동 적용됨)
- 우대금리 : 최대 연0.1%
 - ① 가입후 6개월이상 경과된 예금주 본인명의 외환은행 예·적금 해지후 1개월이내에 이 예금을 신규하는 경우 연0.1%
 - ② 외환은행의 은퇴설계시스템을 통한 은퇴설계 상담후 이 예금을 신규하는 경우 연0.1%

▶ 상품유형 및 원금과 이자 수령방법

- 상품유형 : 거치후 연금식 또는 즉시 연금식 중 택일
 - ① 거치후 연금식 : 최소 1년이상 거치후 나머지 계약기간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 균등분할 수령
 - ▶ 거치기간중 이자는 매년 가입일 해당일에 지급됨
 - ② 즉시 연금식 : 거치기간 없이 전 계약기간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 균등분할 수령

상품 유형	거치기간	원금과 이자 수령기간	원금과 이자 지급시기
거치후 연금식	1년이상 (필수)	1년이상 4년이내 연단위	매월 신규가입 해당일
즉시 연금식	없음	1년이상 5년이내 연단위	매월 신규가입 해당일

- 만기해지금액 지정 : 가입원금의 70%이내에서 만기에 수령 희망하는 금액을 지정 가능
 - ▶ 만기해지금액의 원금은 만기일에, 이자는 매월 수령

- ▶ 수수료 면제 서비스 : 이 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본인명의 외환은행 입출금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입금월 다음달에 전자금융 다른은행 이체 수수료, 외환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다른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주) 은행점포내 자동화기기 또는 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점외 자동화기기에 한 함

※ 이 예금은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예금저축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연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내용은 정보의 주요 내용만을 간추린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나 정보에 대해서는 은행의 약관이나 개별 계약서를 참고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권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거나 은행홈페이지(www.kdb.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구인이야가 영국

스마트폰 시장, 실버세대를 잡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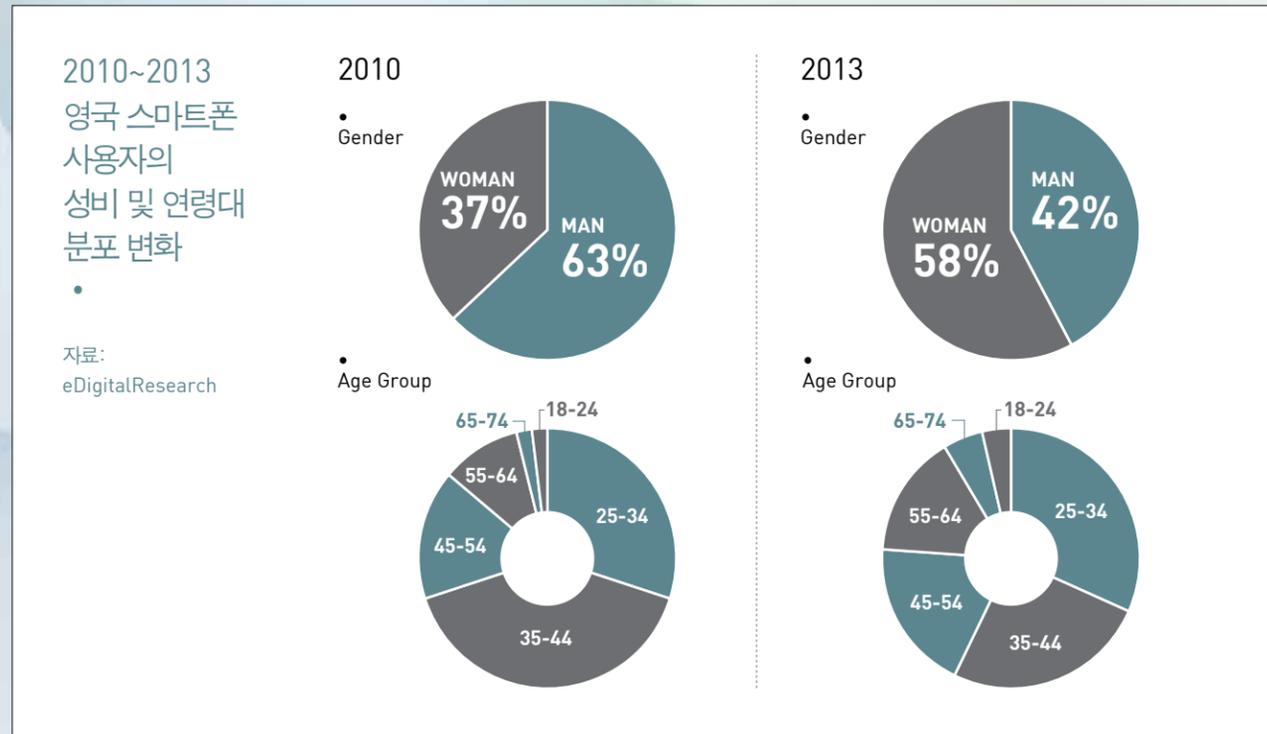
영국 내에서 스마트폰 소유가 수년 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4년에 고령자(55세 이상)의 스마트폰 소유는 2013년 대비 25%나 증가했다.

물론 젊은 세대에 비하면 소유율이 낮은 것이 현실이지만, 빠르게 성장하며 세대 간 간극이 줄어들고 있어, 실버세대는 떠오르는 타겟으로 주목받고 있다.

영국은 인터넷 사용인구가 4,8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영국 전체 인구가 6,000만명인 것에 비춰보면 인터넷 사용 인구가 유럽지역에서도 높은 편이다. 중요한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영국 전체 인터넷 사용자들 중 4,200만명이 스마트폰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특히 스마트폰 이용자의 추세가 남성에서 여성으로, 젊은 연령층에서 노인층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노인층들에게는 iOS 기기가 쉽게 느껴져, 많은 노인층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스마트 실버족 위한 신시장 열린다

스마트폰 실버족이 늘어나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노인 특화 제품이나 서비스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2013년 1월 Which? 매거진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3년 떠오르는 소비자 IT 제품 50개 중 상위 4,5,8위가 스마트폰용 심박체크, 혈압측정, 휴대형 건강기록관리 등이었다. 한마디로 스마트 실버족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영국 유명 백화점 셀프리지는 전자·IT매장 내 스마트 주변기기 코너에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전문상품 코너를 만들어 스마트폰 연결용 건강체크 도구 등 다양한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다. 영국의 소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핫할 것으로 전망되는 제품은 앱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제품, 즉, 스마트 커넥티드 디바이스다. 이처럼 스마트폰 커넥티드 제품은 앞으로 진화를 거듭하며 실버세대에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선사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출시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은 iKettle로 영국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잘 반영한 제품이다. iKettle은 영국 기업인 Smarter의 제품으로 스마트 커넥티드 주전자다. 영국은 커피와 차를 즐겨 마시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iKettle은 주전자 물 온도를 커피와 차 별로 조절이 가능한 보온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 제품은 와이파이를 사용해 사용자가 집 안에 있는 동안 스마트폰으로 주전자를 사용할 수 있다. 아침 알람 기능으로 메시지를 사용자의 스마트폰으로 보내 주전자 전원을 켤 수 있고, 외출 후 귀가 시 자동 메시지가 사용자 폰에 전달돼 주전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차와 커피를 집에서 즐겨 마시는 중년 이상 세대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이다.



노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 급성장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딜로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65~75세의 스마트폰 사용자는 스마트폰 사용법이 미숙하고, 앱을 다운받아 본 경험이 없는 사용자도 31%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영국 내 노인층의 수명이 길어지고 사용자수가 증가하고 있고,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성인인구가 노인세대가 될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큰 소비자 타겟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영국은 2011년 10월부터 정년퇴직 제도를 폐지했다. 퇴직자들은 주로 국가 연금에 많이 의지하는 편이어서 개인연금 시장은 그리 활성화돼 있지 않다. 하지만 영국의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연금 개시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현재의 젊은 층인 10대나 20대의 경우 70세까지 일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층까지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스마트 커넥티드 제품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능 기부로 함께 행복해지기!



진정한 나눔은 주는 것이 아닌 함께 행복해지는 방법이다. 나의 평범한 목소리, 부족해 줄 수 있는 힘, 요리할 수 있는 손, 타이핑할 수 있는 손가락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가치있는 재능'이 된다면 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행복을 위한 기발한 도전, 재능기부에 관심을 가져보자.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음에 더 감사한 재능기부에 한 발짝 다가가는 법.

최근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위해 내가 가진 그 뭔가를 쓰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활용하면 더 높은 수준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또 세계 건강기구의 한 연구에서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뇌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관련된 부분을 활성화시킨다고 발표했다. 나눔이 주는 유익은 이것뿐이 아니다. 사회적 나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혈압과 스트레스 레벨이 낮다는 연구결과가 국제정신생리학 학술지에 실렸다. 나의 아주 소소한 재능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재능기부로 스스로 삶의 기쁨을 발견하고, 다른 이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이 되는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 재능 기부 조건 •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는 진심과 용기, 뜨거운 열정만 있으면 된다.

• 재능 기부 방법 •

관심있는 분야, 관심있는 단체를 통해 신청하거나 개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재능을 나눌 수 있다.

• 작지만 큰 가치 '재능 기부 7곳' •

서울특별시 교육청 꿈사다리(kkumsadari.go.kr) 서울시 교육청 산하 유·초·중·고등학교를 연결해 교육복지활동에 필요한 학습, 심리정서, 문화체험, 보건복지, 운영지원 등 분야에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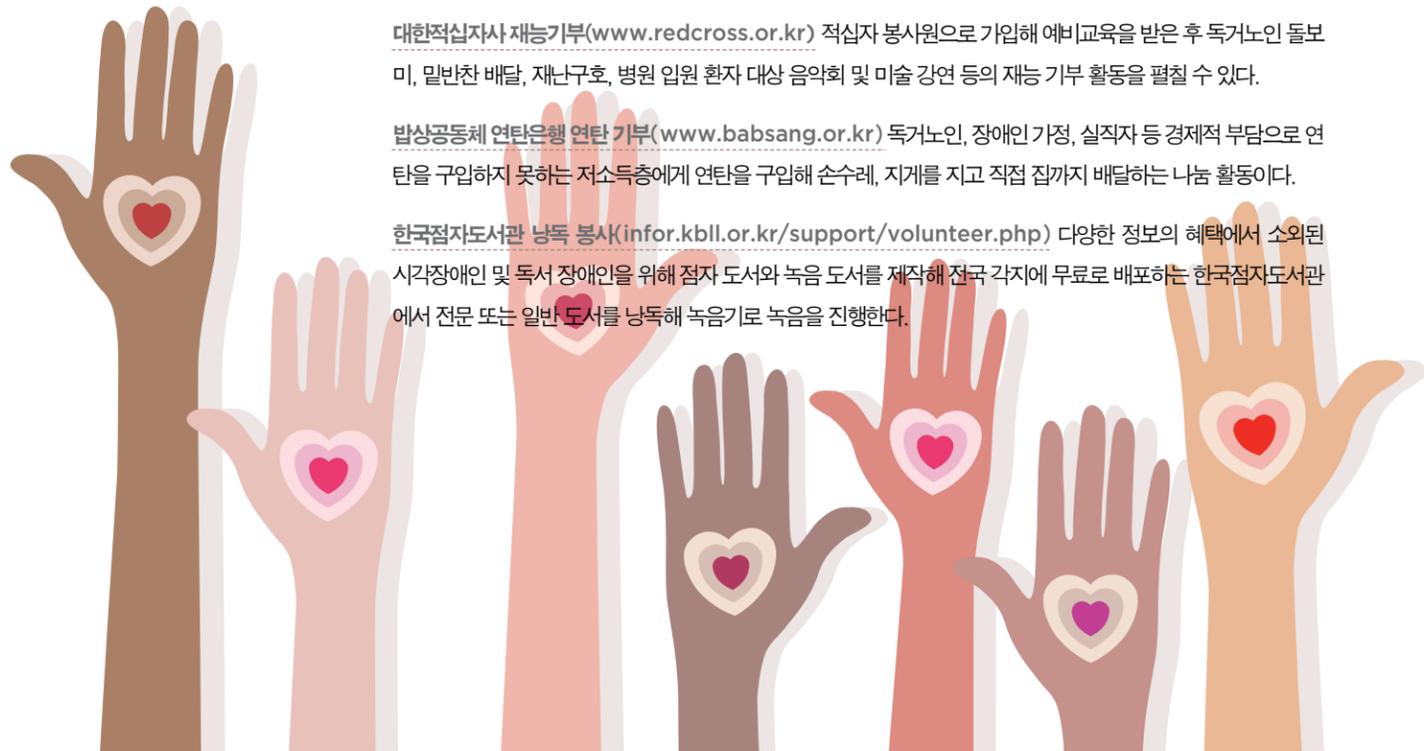
사단법인 공유프로보노코리아(www.igongu.org) 변호사, 회계사 컨설턴트, 마케터 등 전문가 300여 명의 회원인 공유프로보노코리아는 강연, 미술 심리치료, 의료 봉사, 해외 봉사, 문화 공연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한국해비타트 사랑의 집 짓기 운동(www.habitat.or.kr) 건축 현장에 합류해 벽돌 나르기, 시멘트 바르기 등의 나눔 활동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선물한다.

대한적십자사 재능기부(www.redcross.or.kr) 적십자 봉사원으로 가입해 예비교육을 받은 후 독거노인 돌보기, 밀난간 배달, 재난구조, 병원 입원 환자 대상 음악회 및 미술 강연 등의 재능 기부 활동을 펼칠 수 있다.

법상공동체 연탄은행 연탄 기부(www.babsang.or.kr)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 실직자 등 경제적 부담으로 연탄을 구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연탄을 구입해 손수레, 지게를 지고 직접 집까지 배달하는 나눔 활동이다.

한국점자도서관 낭독 봉사(infor.kbll.or.kr/support/volunteer.php) 다양한 정보의 혜택에서 소외된 시각장애인 및 독서 장애인을 위해 점자 도서와 녹음 도서를 제작해 전국 각지에 무료로 배포하는 한국점자도서관에서 전문 또는 일반 도서를 낭독해 녹음기로 녹음을 진행한다.



Trust & Global
하나금융그룹 New Vision!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

행복한 은퇴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행복 knowhow

행복 미래 설계

하나금융그룹의 은퇴설계 통합 솔루션 행복 knowhow

- 통합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 어디서나 준비된 상품을 만날 수 있고, 동일한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
- 전문 시스템으로 탄탄하게**
 - 은퇴설계 전용 인프라 구축
 - 일대일 맞춤 컨설팅 전문인력 제도 운영
-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든든하게**
 - 은퇴 전용 상품 운영
 - 비재무 설계 서비스 통합제공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 하나생명연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며, 하나오피카드는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가입 전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6798호 2014.10.13~2015.09.28)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대한민국 행복금융
하나금융그룹



행복한 금융을 열어갑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12층 | TEL. 02-2002-2220 | FAX. 02-2002-2610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 하나카드